

이준구 교수 퇴임 기념 문집

꽃보다 제기장



이준구 교수님, 정년을 축하드립니다.

— 꽃보다 제자





고등학교 졸업사진입니다. 내가 다녔던 경기고등학교는 마름모꼴의 학교 뱃지가 유명했는데, 지금도 이걸 보면 가슴이 쿵닥쿵닥 뛵니다. 그 시절 생각이 나세요.



대학생 시절 불광동 집의 내 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도 머리술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지요.

대학 신입생 때 불광동 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린
녀석이 정장 양복을 차려 입은 모습이 약간 우습지요?
내 앞에 앉아 있는 개의 이름은 '미니'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학 신입생 때 불광동 집에서 찍은 사진
입니다. 그 집은 조그마했는데, 꽃밭에는 여러 가지 꽃
들이 많이 심어져 있었지요.



대학교 졸업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안경을 처음 쓰기 시작할 때였는데, 안경을 벗은 모습이 조금 어색해 보이네요.



충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의 이준구 병장입니다.



Princeton 재학시절 중앙도서관인 Firestone Library에서 내 지정석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수업이 없을 때는 언제나 이곳에 와서 책을 읽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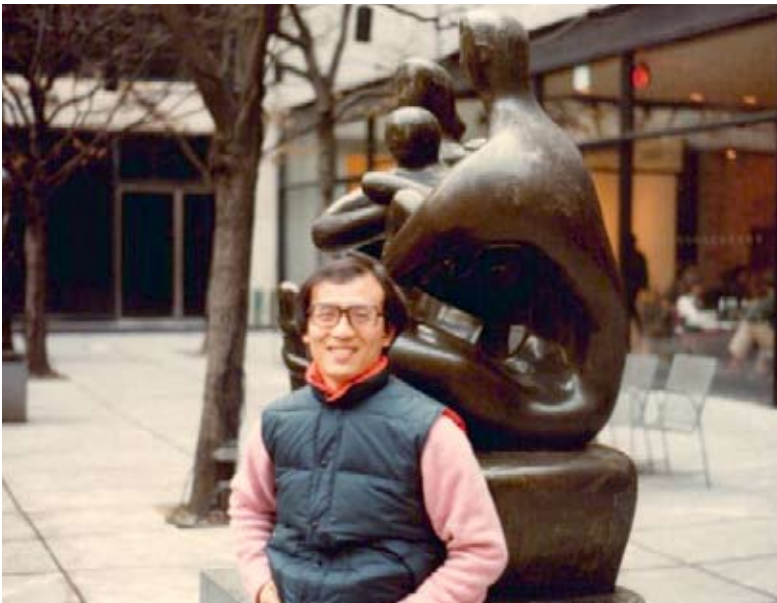
어느 화창한 봄날 목련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길래 그 앞에서 포즈를 잡아 봤습니다.



행정대학원인 Woodrow Wilson School 건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만 해도 배도 안 나오고 몸매가 제법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워싱턴에 놀러 갔을 때 대통령 관저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대통령 관저라 해서 어마어마한 경비가 서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관광객들이 자유로이 거닐고 있더군요.



New York시의 Museum of Modern Art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New York시를 방문할 때마다 이 미술관에 꼭 들러 명화들을 감상했습니다. 당시에는 Picasso가 그린 Guernica가 전시되어 있어 그 그림 앞에서 진한 감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82학번 제자들과 함께 설악산 수학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내 나이가 약관 35세였습니다. 까마득히 먼 옛날이지요.



옆에 선 제자가 박영춘 군이라고 기억하는데, 내 기억이 맞겠지요?



옆에 선 제자는 김현숙 양으로 기억하는데, 졸업을 하고서는 통 연락이 없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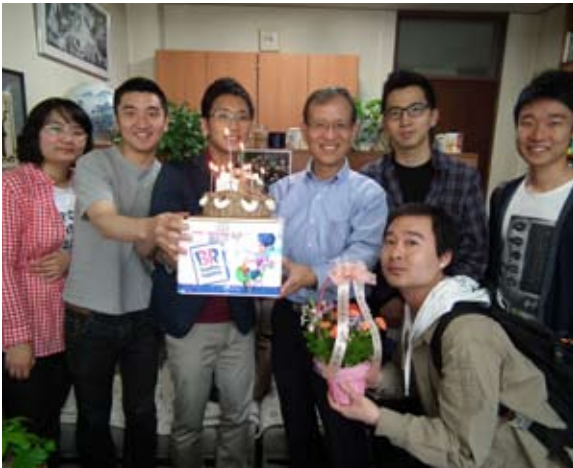
이 친구들이 누구인지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것 같네요.

혼자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 한 명이 자기를 돌아보라고 외치더니 이 사진을 찍대요.



82학번 제자들이 졸업할 때 사은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맨 오른쪽에 Hawaii 대학의 이상협 교수 얼굴이 보이네요.

81학번 제자들이 석사학위 받아 졸업하는 날 모여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는 경제학부가 이 사진에 나오는 14등에 있었지요.



경제학연습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내 생일을 용케 알고 이렇게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들고 연구실로 찾아 왔습니다. 너무 귀여운 녀석들이지요.

내가 아끼는 제자 둘이 결혼을 하게 되어 주례를 섰습니다. 어느 가을날 웨딩 사진을 학교에서 찍었는데 나도 거기에 우정출연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실크로드 탐사팀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늘 가보고 싶었던 돈황의 막고굴을 가본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사막 한 가운데서 찍은 사진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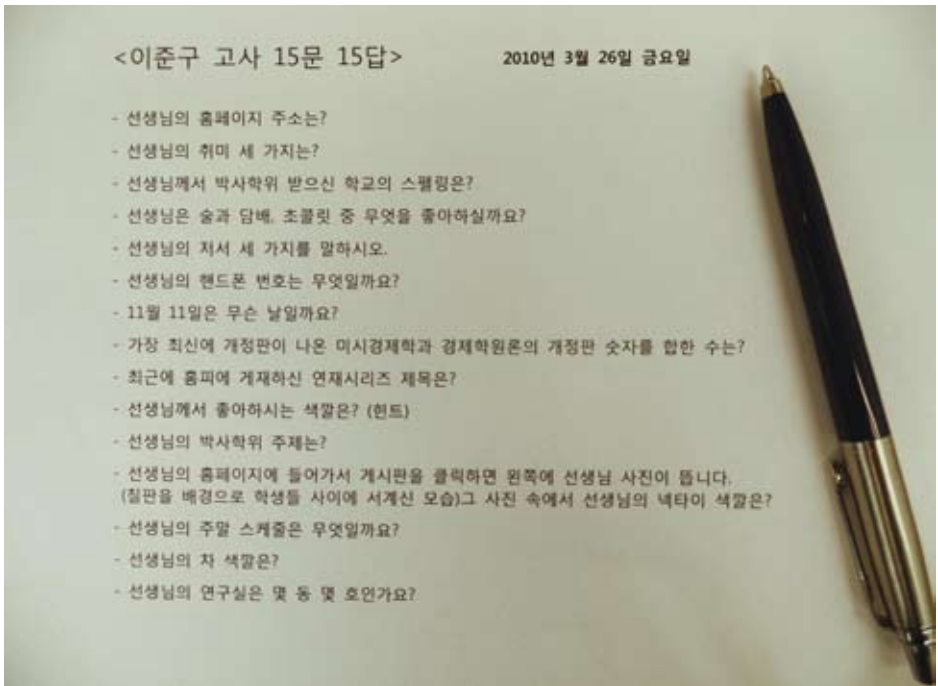
황하 상류의 한 지점인데, 강물의 색이 정말로 누런 황토빛이네요.



딸이 Princeton의 Woodrow Wilson School에 다닐 때 그곳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뉴저지 북단의 어떤 지점에 가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맨해튼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어딘가에서 특강을 할 때 찍은 사진 같습니다. 난 대학 밖에서의 특강 요청은 대부분 사양하는 편입니다. 뭔가 지식상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교수인 내가 팬클럽을 갖고 있다면 선뜻 믿으려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2010년 3월에 발족했는데, 회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이 사진에 나온 문제를 풀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팬클럽의 정기모임은 교양을 높이는 문화행사와 즐거운 식사 그리고 맛있는 디저트 코스로 구성됩니다. 이 사진은 리움에서의 모임 때 찍은 사진인데, 미술을 전공하는 회장이 언제나 멋진 가이드 역할을 해드립니다.



연구실에서의 망중한이라고나 할까요? 이 연구실에 나의 삶이 그대로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Princeton 재학시절 우리 집 남쪽에 있는 Carnegie호수에 놀러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내 나이가 스물아홉이었습니다. 장발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쯤 가족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서른이 넘는 애들이 옛된 모습으로 서로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게 무척 귀여워 보이네요. 내 눈에 안경인가?



Hawaii의 Maui라는 섬에 가족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상당히 젊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내 삶에서 가족은 영원한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서울대학교에 갓 왔을 때 선배 교수님들과 도봉산에 겨울 등산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즘은 우리 교수들 사이에 이런 행사가 무척 드물어 조금 섭섭하네요.



우리 경제학부 교수들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학교를 떠나 계신 선배 교수님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한반도에 대운하를 건설한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듣고 분노한 나는 장문의 글을 써서 그 부당함을 낱알이 지적했습니다. 그 글이 공개된 지 얼마 후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모여 이 반대 모임을 열었습니다. 대운하 사업은 저지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나쁜 4대강사업을 저지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내가 제일 아끼는 후배 이창웅 교수입니다. 우리가 공저한 경제학원론 책을 들고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학교를 떠나 IMF에서 맹활약 중이지요.





최근 내 경제학연습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과 종강기념 등산을 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녀석들은 산을 나보다도 더 힘들게 오르더군요.



강의 도중에 어떤 학생이 찍어준 사진입니다. 이걸 내 홈페이지 표지 사진으로 쓰고 있지요.



내가 미시경제학 강의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 학교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모처럼 한 번 떠볼 기회가 생긴 것 같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한때는 학교 홍보물에 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정년을 바로 앞둔 2014년 대학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크게 잘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훈장을 목에 걸어주니 조금 쑥스럽더군요.

차례

이준구 교수님 퇴임기념 문집을 내며	1
이준구 교수님을 기리며	강대창 3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김영철 9
이준구 교수님의 가르침	김인경 15
이준구 교수님에 대한 단상	김 진 18
술밭집 국수, 그리고 36.5°C 인간의 경제학	김태승 21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생각함	김태종 26
선생님, 저 팬이에요!	김희삼 30
이준구 교수님과 ‘퇴짜’의 추억	노영우 35
이준구 교수님은 제 인생을 바꾸어 주신 교수님이십니다	류두진 40
이준구 교수님과 나	박상인 43
존경하는 이준구 교수님께	서영경 46
이준구 선생님, ‘공포의 저격수’에서 ‘이웃집 흰머리 소년’으로	성명재 50
나의 은사님, 우리 시대의 스승	신영철 54

정년을 맞으신 이준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진영 60
이런 교수님이 또 어디에 계실까요?	오종석 66
이준구 선생님을 생각하며	옥동석 72
상쾌한 감시자인 선생님	윤희숙 75
1984년 교수님의 첫 강의에 대한 회고	이상영 80
이준구 선생님과 추억	이 영 84
“너 너무 빠르고 바쁘게 살지 말아라”	이창용 87
불확실성에 맞선 ‘독일병정’	이태환 93
안식	전영준 100
내가 기억하는 이준구 교수님	조명환 104
지적 자만심에 빠진 우물 안 개구리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신 이준구 교수님	조성욱 109
정의기반(正義基盤) 위에 바로 선 자본주의를 위하여	주병기 116
스승님의 추억	차문중 120
이준구 교수님은 내 대학 생활의 즐거움	한순구 127
대한민국에서 경제학 교수로 산다는 것	홍종호 131

이준구 교수님 퇴임 기념 문집을 내며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이 시대에 31년을 한 직장에서 보낸 분이 계시다. 시공간을 넘나들며 상품과 서비스, 정보가 오가는 이 세상에 늘 같은 자리를 지켜온 분이 계시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 사회에 1년 365일 같은 길을 오가는 분이 계시다. 대한민국에 이처럼 예측가능한 분이 또 있을까. 바로 우리의 스승이신 이준구 교수님이시다.

이준구 선생님께서는 1984년 3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에 부임하셨다. 그 이후 정년을 맞는 올해까지 교육자와 연구자로서의 외길을 걸으셨다. 세월이 흘러 제자들의 나이가 동생에서 자식으로, 이제는 어린 조카뻘로 바뀌었지만 선생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으시다. 열정과 유머가 넘치는 강의, 언제나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연구실, 학생들과 대화할 때 보이시는 해맑은 웃음... 한결같다는 것,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일인가.

이준구 선생님은 우리가 모교를 생각할 때면 늘 도움과 힘을 얻을 수 있는 큰 동지 같은 분이시다. 당신께서 이제 긴 비상(飛翔)의 첫 마침표를 찍으신다. 몇몇 제자들이 모여 그동안 품어왔던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자그마한 문집을 생각하게 됐다. 둘만이 알고 있던 선생님의 비밀을 공개하고, 소중히 쌓아왔던 선생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다. 28명의 제자들이 선뜻 글을 보내왔다. 50대의 현직 국책연구원 원장부터 20대의 학부생까지 세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모두 이준구 선생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문집에 글을 기고해 준 선배님, 동기, 후배들에게 감사한다. 이준구 선생님 덕에 모두가 하나 된 느낌이다. 문집 발간을 위한 아이디어부터 편집과 교정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시간을 아끼지 않은 이상영 명지대 교수님, 윤희숙 KDI 박사, 김영철 상명대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문집의 출간을 기꺼이 맡아 작지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 주신 문우사 김영훈 대표님에게 감사를 표한다.

인생 이모작의 출발을 앞두신 선생님께 이 책을 올려드리며, 선생님과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웃음이 넘쳐나길 기원한다.

2014년 12월 5일

문집에 함께 한 제자들을 대신하여

82학번 제자 홍중호 씀

이준구 교수님을 기리며



* 강대창(경제학과 86학번)_한국행정연구원

제가 이준구 교수님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대학교 2학년때인 1987년 경제수학 수업에서 처음 수업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명석하신 분위기에 친근하시면서도 엄격하신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은 유쾌하고 배려심이 많은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준구 선생님과 인연은 지속되어 오심을 바라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자 모임을 하면서 더 친근해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선생님과 인연, 글쓰기, 거절 이렇게 세 가지 에피소드를 기억하면서 이준구 교수님을 기리고자 합니다.

1. 인연

경제수학 어느 수업시간에 이 교수님께서 늦으시자 조교를 통해 늦어도 수업 진행되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다렸고, 몇몇 짓궂은 친구들이, “오늘 휴강이래!” 외치면서 몇 명의 친구들을 꼬드겨서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조금 후에 수업에 들어오신 이 교수님이 화가 나서서, “오늘 까부는 놈들 혼날 줄 알아!”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왜 화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업을 늦게 진행하시게 된 점에 대해 자책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짓궂은 학생들이 메시지를 왜곡해서 전달해서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업이 약간 진행된 후, 어느 수업시간과 마찬가지로 유쾌하게 진행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경제수학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에서 시험 문제로 4×4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하는 문제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손 많이 가고 짜증나는 문제를 왜 내셨나 속으로 불만이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께서 일선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문제를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1988년 3학년 재정정책 수업 시간의 일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해주시고 학생들이 자원해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도록 배정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수업받은 학부 수업 중에서 유일하게 수업 과정에 토론을 추진한 수업입니다.

중간고사 채점을 하신 후 성적 처리 결과를 말씀해주시면서, 신현호를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한 문제의 답에 대해

“신현호, 너가 ‘한강에 오줌누면 한강이 짜지는가’라고 썼지?”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야, 신현호! 대답은 인상적이긴 한데, 답안지에는 그래도 쫌잘게 써야지.” 하셨던 일이 기억납니다.

학부 3학년 때인 1988년 2학기에 저희 친구들이 제주도로 수학 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 경비가 많이 나와서 저희 친구들 몇 명이 기업을 방문해서 경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변형운 교수님과 송병락 교수님이 기업을 방문해서 경비 지원을 요청한 저희 친구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준구 교수님을 찾아 뵙고 이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걱정하지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잊혀질 거야. 이번 수학여행이 성공적이어서 그런거야.” 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음 속으로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이준구 교수님이 무게 잡지 않으시면서 학생들을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재정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경제학 과목에 대해 깊이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준구 교수님을 좋아해서 재정학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1990년에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고 1학기에 이준구 교수님 수업의 TA를 했습니다. 물론, 석사 지도교수로 이준구 교수님의 지도를 받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 선생님께서 하와이

로 안식년을 떠나시게 되었고, 전영섭 교수님이 부임하셔서 저는 전영섭 교수님께 석사 논문을 지도받게 되었습니다.

1991년 2학기에 석사 논문을 거의 마무리 할 즈음에 교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전영섭 교수님으로부터 이준구 교수님께서 저를 석사 논문 지도학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준구 교수님을 찾아뵙고, “제가 교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에서 재정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전영섭 교수님으로부터 지도받았습니다. 마무리도 전영섭 교수님께 받고 싶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좋아하지만, 인연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저도 안타까웠지만, 감히 제가 좋아하는 분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2. 글

저는 이준구 교수님으로부터 글 쓰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 들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미시경제학」이 큰 성공을 거둔 1990년대 초반 언젠가 선생님을 찾아뵙고 교과서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은 즐거워하시면서 글쓰기 비법(?)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글을 쓸 때, 처음 문장이 제일 중요하니, 처음 문장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라. 핵심 주제로 바로 들어가라. 말

을 빙빙 돌리고, 중언부언하면서 힘을 빼고 나중에 이상한 이야기로 빠지지 않게 해라. 한 문단에는 하나의 아이디어만 담아라. 문단의 처음 문장에 핵심 메시지를 적어라. 문단의 나머지 문장은 처음 문장에 대한 supporting evidence를 논리적으로 배열해라. 한 문장에도 하나의 아이디어만 담아라. 되도록 접속사를 많이 쓰지 말아라.”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문장은 되도록 짧게 쓰고, 한 문장 길이는 모니터 상에서 한 줄 반 정도 되도록 해 봐. 이것이 내 비밀이야.”하시면서 자랑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준구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방식을 따라 글을 쓰려고 애씁니다. 이준구 교수님만큼 글발을 따라가기 어렵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방식은 글쓰기의 표준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3. 거절

이준구 교수님이 저에게 심어준 강렬한 인상 중 하나는 거절을 하시면서도 상대방이 납득하도록 친절하게 충분히 설명해주신 것입니다. 그 점도 이준구 교수님의 빼어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1994년에 교수님께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좋은 학교 입학지원서를 들고 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야, 강대창, 나는 이 학교에 추천서 써줄 수 없어. 너 성적으로는 이 학교에 맞지 않아. 좋은 학교에 가서 고생하고 잘 못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하는 학교에서 잘 한다는 소리 듣는

것이 훨씬 좋아. 용 꼬리 되는 것보다 닭 머리가 되는 것이 나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유학 시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위로해주셨습니다.

저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만 저의 상황을 고려하시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 수긍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이준구 교수님이 계속 건강하시고,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준구 교수님, 사랑합니다!

강대창은 1992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2003년에 Washington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전에 국회예산정책처,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서 근무하였다.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김영철(전기공학부 95학번)_상명대학교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이런 거창한 제목을 붙여 놓으면 으레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나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와 같은 부류의 책들을 떠올릴 것이다. 내 인생을 바꾼 책이 만약 이준구 선생님의 ‘미시경제학 3판’이라고 한다면 이 글을 읽는 이들이 무척 당황해 할 듯하다.

나는 많은 서울대 학생들이 그러하듯 ‘고시’가 마치 당연한 도전인 양 생각하며 대학생활을 시작하였다. 당시 내가 출몰하던 녹두거리 ‘춘추관’은 고시업계의 대명사였고, 나는 거기서 ‘미시경제학 10주 완성’을 수강하였다. 당시 잘 나가던 강사는 이준구 선생님의 수제자라고 소문난 모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이준구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니 고시생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다. 강의는 참 따분했지만, 덕분에 나는 『미시경제학』(3판)을 처음부터 차근

차근 읽어 나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경제학이란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재밌다.’ 마치 눈앞에 신세계가 펼쳐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나와 경제학의 첫 만남이 있었다.(나중에 이 강사가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께 여쭙보니, “난 대체 누군지 모르겠다”고 답하셨던 기억이 난다...)

당시 소위 ‘타과생’이었던 나는 그 길로 경제학과 연을 맺게 되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경제학과에서 개설한 수업들을 들었다. ‘논리’의 도구로 세상의 이치를 면밀하게 파헤치는 이 신묘한 학문을 왜 미쳐 몰랐을까? 나의 지난 과학고 생활까지 탓하기도 했다. 어느덧, 고시공부는 너무나 시시하고 따분하게만 느껴졌고, 그간의 준비는 모두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러던 중 군에 입대하였는데, 믿거나 말거나 모진 군 생활에 가장 위안이 되었던 것 역시 『미시경제학』이다. 부대에서 짹짹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던 후임들을 모아 ‘이준구 미시경제학’ 스터디그룹을 결성하였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다. 덩달아 나도 인기가 좋았다. 그 뒤 대학을 졸업하며, 경제학을 계속 공부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결국 경제학과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였다.

내가 이준구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은 ‘논문지도연구’라는 1:1 수업을 통해서였다. 선생님을 그 전에도 종종 뵈기는 하였는데, 주로 등하곶길의 413번 버스나 스쿨버스 안이었다.(늘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막상 선생님을 면전에서 뵈는 생각을 하니, 며칠 전부터 긴장이 되었다. 나는 평소 관심이 있었던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문들을 잔뜩 찾아다가 간단한 연구계획서를 준비해 갔다.

연구실 문을 열었더니, 선생님은 가득 채운 화초들 속에 둘러싸여 계셨다. 그 선생님의 첫 마디는 “자넨 너무 많이 준비해 왔어~” 였다. “앞으로 그냥 편하게 찾아오도록 하게.” 그 뒤로 유학을 나가기까지 종종 선생님을 찾아뵙게 되었다. 한 날은 선생님이 『경제학원론』 최신판을 직접 싸인해서 선물해 주셨던 기억이 난다. ‘원론’에는 연못 사진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직접 찍으신 ‘자하연’ 사진이라고 무척 흐뭇해 하셨다. 그리고, ‘마트에서 장보기’와 ‘인터넷과 핸드폰’이라는 사진들에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등장했는데, 선생님의 따님이라고 살짝 알려 주셨다. 앞서가는 ‘디카족’이셨던 선생님은 화초들을 참 좋아하셨고, 늘 소탈하고 자상하셨다.

유학을 앞두고 학비가 보장된 오하이오 주립대와 학비부담이 큰 브라운대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의 격려에 힘입어 브라운대로 선택하였다. 이런저런 걱정을 안고 유학길에 올랐는데, 설상가상으로 가자마자 아내가 임신을 해 버렸다. 그런데, 다행히 일이 다 잘 풀려서 폴브라이트 재단과 학교로부터 전액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지원받게 되었다. 학교생활에 적응할 즈음 ‘보고’ 차원에서 이메일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여느 때처럼 간결하고 ‘힘있는’ 답변을 주셨던 기억이 난다:

Dear Asian Ti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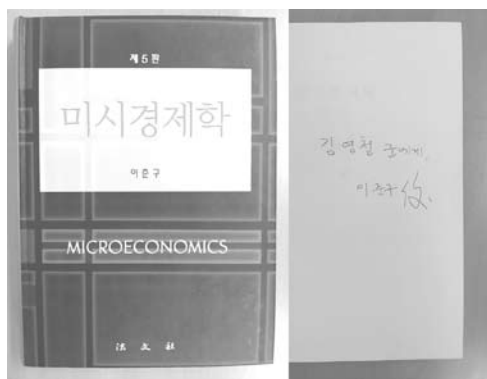
거기서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
여러 가지로 일이 잘 풀린 것 같구만.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야.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학문에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네.
예쁜 아기도 갖게 될 것이고.
Happy New Year!

이준구

(수신: 2004년 12월 31일)

당시 ‘미시이론’을 못 따라오는 동년배 미국 학생들에게 내가 매주 Tutoring Session을 열어 주었는데, 그때 이 친구들이 나에게 붙여준 별명이 ‘Asian Tiger’다. 선생님의 이메일에 은근히 우쭐해지기도 하고, 힘이 불똥 솟았다.

2008년 여름, 유학생활 중에 딱 한 차례 귀국한 적이 있다. 이때도 선생님을 잠시 찾아뵈었다. 홈페이지에 올린 대운하 관련 글로 한참 유명세를 타실 때다. 나도 한참 ‘공감’을 하던 터라 더욱 선생님을 뵈고 싶었다. 대운하 글을 접하고 속이 정말 후련하였다고 말씀드리자, 선생님은 아주 상식적인 것을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풀어췄을 뿐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것도 이해 못하는 경제학자가 많다고...(이 말씀은 내가 향후 KDI에서 정책연구를 하며 늘 한 번씩 되 뇌이곤 하였다. 그리고, 정말 ‘상식’에 기초한 정책대안을 내놓고자 늘 스스로를 채근하는 계기가 되어 주



2008년 7월 17일 '하사' 받은 『미시경제학』 5판

었다.) 이날 선생님은 방금 나온 따끈따근한 책이라며 직접 싸인을 하신 뒤 『미시경제학』 5판을 건네 주셨다(사진 참고). 내 인생을 바꾼 책을 선생님께 직접 ‘하사’ 받으니 참으로 감개무량하였다.

2009년 학위를 마치고 KDI로 입사한 뒤, 매년 두 차례 모임을 통해 선생님을 뵙고 있다. 선생님은 세상만사에 대해 언제나 호트러짐이 없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선 타협 없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가까워서 선생님을 뵙는 것은 나에게 늘 도전이 되고, 또한 참으로 감사한 자리이다. 작년에 대학으로 이직한 뒤로는, 선생님만큼 훌륭한 ‘선생’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 스스로 자책감이 들 때가 많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공공경제학 수업도 선생님이 만들어 두신 ‘재정학 강의’ 슬라이드를 조금 바꿔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호응이 너무 좋다. 이번 학기에는 무려 93명이나 신청을 하였다. 선생님께는 항상 빚진 마음이다.

유학을 가서 한국학생들이 모일 때면 어김없이 모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하나 둘 떠올리며 추억을 하게 된다. 지금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전성재 선배가 이준구 선생님에 대해 이런 일화를 들려주었던 기억이 난다:

“선생님이 일전에 학생들에게 office hour에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오라며 비어있는 강의실 번호 하나를 알려 주셨지. 학생들이 교수 연구실로 직접 찾아오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 선생님이 따로 빈 강의실을 알아 두셨다는 게야. 그리고, 한학기 내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실망하셨다고...”

선생님은 학생들과 가까이 하고자 먼저 노력하셨고 늘 편안하게 대화를 즐기셨다. 그래서, 누구도 감히 따라오지 못할 고전같은 교과서들을 많이 남길 수 있었던 것 같다. 고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에게든 나처럼 경제학에 첫 발을 들여 놓던 학생들에게든, 분명 선생님은 ‘스타’ 교수임에 자명하다. 그리고, 학자 혹은 연구자의 길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에게 선생님의 자상한 ‘격려’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지금의 이준구 선생님을 대체할 만한 분이 있을까? 최소한 미시분야에서는 십수년 내에 결코 나타나지 못하리라 믿는다.

김영철은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95학번으로, 이준구 선생님의 강의와 저서에 감명을 받아 경제학으로 ‘전향’하였다. 브라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KDI 연구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교육제도, 불평등이론, 사회적 자본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

이준구 교수님의 가르침



* 김인경(경제학부 01학번)_한국개발연구원

9년 전 유학을 준비하는 와중에 이준구 교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만족스러운 회사생활은 불가능했을 것 같다. 당시 나는 경제학부만 마치고 미국의 경제학 석박사통합 과정으로 진학을 준비 중이었는데, 성격이 외향적이지 않은데다 석사과정을 거치지 않아 마땅히 추천서를 받을 만한 교수님이 없었다. 실지로 수업을 듣고 학점도 좋았던 몇몇 경제학부 교수님을 찾아갔지만, 나를 잘 모르니 추천서를 써줄 수 없다며 연신 거절하셔서 '이러다 유학 못 가겠구나.' 하며 걱정했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교수님이 이준구 교수님이었다. 3학년 때 이 교수님의 재정학 수업을 항상 앞에서 한두 번째 앉아 듣기는 했지만, 당시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대학생활을 즐기느라 성적이 썩 좋지 않았다. 그래도 교수님은 나를 내성적이지만 성실한 학생으

로 기억하고 계셨고, 추천서 부탁을 정말 너무나도 흔쾌히 들어주셨다. 그 덕분에 간신히 추천서 3장을 채워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5년 후 한국개발연구원에 취직한 후 좋은 동료들에 둘러싸여 즐겁고 보람된 회사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이준구 교수님을 생각하면 항상 호탕하게 웃으시며 제자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선뜻 내주셨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 모습을 귀감 삼아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무심하게 느슨해지려 하면 항상 교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는다. 만일 이 교수님마저 나에게 유학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대학원 진학 기회를 놓쳐버린 데 대한 아쉬움이 가득해 타인을 배려하는 여유를 갖지 못했을 것 같다. 바쁜 일과 중에 나와 무관한 사람에게 얄은 처세술이 아닌 진심을 다해 따뜻한 말을 건네고 도움을 주기란 참 쉽지 않다. 이런저런 일로 머리가 복잡한 와중에 단지 귀찮아 누군가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지는 않는지, 나보다 낮은 위치의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지, 내가 느끼는 이 교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타인에게 갚는다는 마음으로 내 태도를 점검하고 진실한 됴됨이를 유지하려고 노력중이다.

이 교수님께 또 배울 점은 대화를 나눌 때 표정과 어투에서 상대를 감싸주시는 따뜻함이 느껴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딱히 근심을 털어놓지 않더라도 교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때가 많다. 작년 말 출산을 한 후 올해 스승의 날 저녁 모임은 아쉽게도 아이를 직접 돌봐야 해 참석할 수가 없었다. 그 대신 남편을

운전기사 삼아 아이를 데리고 서울대로 직접 찾아봤는데, 반갑게 맞아주시던 표정과 육아의 어려움에 대한 위로에 그간의 고단함이 풀리면서 큰 위안이 되었다. ‘타인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만남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딸아이가 눈을 비비며 칭얼대자 교수님이 졸린 거라며 남편에게 아이를 안으라는 조언을 주셨고 정말 아이가 이내 잠들어서 역시 자녀에게까지 자상하셨구나 싶었다. 그리고 교수님 방을 나오며 남편도 아버지 상에 대해 느낀 바가 있었는지 그 이후 아이의 표현을 좀 더 세심히 관찰하며 원하는 바를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도 교수님 그늘에서 너그러운 심성과 긍정적인 기운을 본받을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

교수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인경은 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으로 지내며, 여성고용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이준구 교수님에 대한 단상



*김진(경제학과 86학번)_동덕여자대학교

나에게 이 교수님은 다분히 이론적인 강의와 퀴즈 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한 재정학 교수님으로 생각된다. 언젠가 강의 내용에서 중고차 시장처럼 판매자만이 품질을 정확히 알고 구매자는 모르는 경우를 Lemon이라고 하시면서 ‘개살구’라고 표현하신 것을 기억한다. 그 반대를 ‘참살구’라고 하셨던 것을 보면 서구와 우리나라 양쪽 문화의 차이를 바탕으로 경제학적 사고개념을 쉽게 도입하려 노력하셨던 분으로 생각된다.

대학원에서 좀 더 이론적인 공부에 매료되어 다른 미시 분야 교수님들 강의와 나름 노력하여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이 교수님이 가르쳐주셨던 재정학 특히 후생경제학 내용이 도움이 되었고 나중에 미네소타에서 루카스류의 거시경제학을 배울 때까지 좋은 영향력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아마도 나의 경우 조세연구원이라는 전 직장에서 조세와 재정을 붙들고 고민하지 않았다면 이 교수님은 좋은 선생님이로 그리고 베스트셀러 교과서를 펴낸 학자로만 기억되었을 것이다. 내 기억에 선생님은 술도 드시지 않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가끔 “선생님이 과자를 드시나?” 서로 물어보는 정도이셔서 나는 선생님이 차를 좋아하시고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3년 가을 귀국하여 조세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어느 순간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약간 달라졌다. 이론경제학을 공부하다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놀다가 귀국하여 우리나라 조세 재정을 아우르는 직장에 근무하다 보니 여러모로 고민이 많았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정부 주도의 작업들이 과연 필요한가? 우리 경제의 시장기능은 아직 어렵지 않겠는가? 과연 우리나라가 성장이나 분배에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기나 하는 상황일까? 등등 여러 회의적인 상황이 노정되는 시기에 여차하여 여러 제자들과 함께 이 교수님을 뵈올 계제가 있었다.

그 때 이 교수님은 ‘시장과 정부’라는 본인 저작의 책을 한 권씩 나누어 주셨다. 내 생각에 교수님이 ‘여러모로 현실 경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시장과 정부의 기능 및 한계에 대해 강의하셨기 때문에 책을 내셨구나’ 하고 감사히 받아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교수님이 정부 정책에 대해 올바른 쓴소리를 SNS를 통해 개진하시고 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신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나로서는 유학 기간 동안 다

른 생활을 했고 우리나라에 대해 별 관심도 주지 않았던지라 그리고 각종 새로운 기술에 무덤덤했기에 교수님의 이러한 외도 아닌 외도를 잘 몰랐었는데 흥미를 갖고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 상당한 팬을 갖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이셨던 것이다.

지금은 그때의 놀람과 흥미가 다소 퇴색했지만,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하고 권면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베스트셀러 학자분이 정부 정책에 대한 학자적 양심으로부터의 올바른 쓴소리만이셨음이 나에게는 흥미로운 충격이었다. 지금은 내 학창시절의 군부통제나 압력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자기주장이 많고 변덕스러운 악플러들의 몰상식이 두려우시지는 않으신지 걱정이지만, 선생님의 참여에 어렵פות이 느껴지는 용기가 참으로 감사하였던 것이다.

이제 이 교수님과 여러 제자분들의 만남에 가끔 참여하여 이 교수님의 여러 활동을 보고 듣고 많은 다른 것들을 느끼고 자양분으로 삼고 있지만, 내가 바라보는 이 교수님의 정점은 재정학자로서 시장과 정부의 경쟁과 협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신 성실성과 탁월성과 용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다.

김진은 서울대 석사학위 취득 후 공군사관학교 경제학 교관을 역임한 뒤 도미하여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SELU에서 경제학 강의를 한 후 귀국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론경제학과 조세재정론이 주 관심분야이고, 경제학이론과 경제현실의 접목을 추구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솔밭집 국수, 그리고 36.5°C 인간의 경제학



* 김태승(경제학과 81학번)_인하대학교

학부, 그리고 끝이어서 다니던 석사과정 시절에도 선생님을 개인적으로나, 수업을 통해 뵈는 적이 없다. 학부 때는, 4학년 올라가면서 그분이 학교로 오셨고, 미시경제학, 재정학 등은 다른 교수님께 이미 수강을 했기 때문이라는 핑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석사과정에서는 충분히 수업 한 과목 쯤 들을 수 있었으련만 스스로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 캠퍼스 내에 은밀히 스며들어 있던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른바 ‘경제사연구실’ 소속이었으니까.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처음 뵈는 것은, 1994년 뒤늦게 박사과정을 다니면서부터이다. 이제는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재정학 과목을 수강하였다. 하필 시간이 오전이어서 수업이 끝나면 점심시간이었고, 선생님은 대여섯 명의 우리를 끌고 교수회관 옆의 ‘솔밭

집'으로 국수를 드시러 가시곤 하셨다. 당연히 선생님과 여러 가지 사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지금도 빙그레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는, 선생님께서 정운찬 선생님을 많이 질투(?)하셨다는 것이다. “운찬이 형보다 내가 키도 크고, 어찌면 얼굴도 잘 생기고, 학생들과의 만남도 더 다양했는데, 너희 또래 학번들은 왜 정운찬 선생님을 더 좋아 했나?” 어찌면 학교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선생님께서 품고 계셨던 마음을 우리 학번들과 제대로 나누시지 못했던 아쉬움을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추측해본다.

가끔 이런 질문도 하셨다. “너희들 정말 80년대 학생운동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신념이 달랐나?” 불의한 시대에 대한 다양한 저항방식 중의 하나라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런 나의 대답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편하게 받아 주셨다. 그런 질문을 하신 것도, 초라한 대답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신 것도,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하시는 스승의 모습이었다고 지금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선생님과의 인연은 그 이후, 박사학위 논문 심사교수로,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의 제자모임 일원으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하나 더 있다. 5~6 년 전, 선생님께서 SNS를 통해 사회적 발언을 활발히 하실 때 선생님을 찾아뵈는 적이 있다. 선생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 영역까지 활동반경을 확대하시도록 꼬드기고 싶은 음흉한 마음을 품고서 말이다. 결론

은 뻔했다. 미처 말씀도 꺼내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한심한 제자인지만 확인하고 돌아섰었음을 이제야 고백한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러나 이 모든 에피소드보다 내가 선생님을 ‘참스승’으로 믿고 존경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연구실에는 선생님께서 그간 쓰신 책들이 얼추 다 있는 것 같다. ‘36.5°C 인간의 경제학’,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시장과 정부’, ‘재정학’, ‘미시경제학’, ‘경제학원론’...

이 중 앞의 세 권은 지금도 내가 이따금씩 꺼내서 읽고, 또 읽고 하는 책들이다. 워낙 학과공부에는 자질도 없고, 부지런하지도 않아서, 재정학, 미시경제학 등은 아직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한 적이 없다. 그저 학생들을 가르치다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거든 한 번씩 들춰보는 수준이다. 하지만, ‘36.5°C 인간의 경제학’과 ‘시장과 정부’, 그리고 ‘쿠오바디스 한국경제’는 다르다.

전공이 하필 교통, 물류 등 인프라와 네트워크 산업에 관련된 분야이다 보니, 시장경제 속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의 범위가 가끔 혼돈스러울 때가 있다. 그것도 그냥 이론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어느 것까지 정치의 영역이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답답할 때가 있다. 세금 문제가 현안으로 걸리면 더욱 답답하다. 그 때마다 꺼내드는 책이 ‘시장과 정부’이다. 제목이 그래서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책 후반부에 정리해놓으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읽다보면, 어렵פות하게나마 가닥이 잡히는 경험을 자주하였기 때문이다.

벌써 30여년 쯤, 경제학 전공자로서 어쭙잖은 삶을 살고 있고, 심지어 학생들에게 경제학과 통계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지금도 이론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 당황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36.5°C 인간의 경제학’을 펼쳐 본다. 그리고, 신통하지 못한 내 지식에도 이미 고정관념으로 자리잡아버린 경제학의 기본 가정들을 발견하곤 한다.

‘쿠오바디스 한국경제’는 선생님께서 언론 지면에 쓰신 칼럼을 모아놓은 책이다. 발간한지 벌써 5년이 지난 책이니, 그때 선생님께서 다루신 시사현안들은 이미 오래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낀다. 책의 서두에 밝히신 바와 같이 ‘학자적 양심에 기초한 논의의 출발점’을 만드셨지만, 나는 그 안에서 해결책의 열쇠도 발견하는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

바로 그래서 선생님은 나의 참스승이시다. 솔밭집에서 국수를 먹으며 선생님을 뵈게 된 것을 나의 큰 행운이라 생각하고, ‘36.5°C 인간의 경제학’에 담긴, 사람을 중심으로 한 따뜻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선생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나의 학문적 지향이자 삶의 좌표이다.

그런 선생님께서 이제 정년퇴임을 하신단다. 아마 선생님께서 가꾸신 화단에 핀 꽃을 카메라 앵글에 담으시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선생님의 삶 속에 오롯이 담겨져 있는 가르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더 많은 글과 책으로 나의

게으름을 채찍질하실 지도 모른다. 벌써 두렵다. 하지만 이런 다짐도 해본다. 멀찌감치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제 좀 더 가까이 선생님 곁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 그런 시간과 공간이 가까운 시간 안에 만들어질 기대해본다.

김태승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토연구원(KRIHS) 연구원으로 시작하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로 있으며,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 회장,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감사 등을 맡고 있으면서, 항공, 해운, 철도 등 교통물류산업구조, 경제적 타당성 분석 관련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생각함



* 김태종(경제학과 84학번)_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이준구 교수님과의 감사한 인연을 되새기며 추억을 더듬자면
늘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은 86년 봄 3월초 어느 밤 꾸었던
악몽의 기억입니다. 장소는 옛 7동의 한 강의실, 교수님의 재정학
수업이 시작된 지 얼마 시간도 흐르지 않아 교수님께서 저를 지목
하시면서 엄청난 고성으로 “김태종, 나가~~~!”하고 외치시고,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리에서 움썹달썹 못하고 짓눌리고 있
다가 잠에서 겨우 깨어났던 기억입니다.

그 해 3월 학부 3학년이 되어 교수님이 개설하시는 재정학에 수
강신청을 하였었습니다. 당시에 교수님의 재정학 과목은 인기
과목이라 수강신청자가 늘 많았습니다. 교수님은 개강 첫날 말하
자면 수강자격 검정을 위해 미시경제학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
를 묻는 시험을 내셨고, 저는 그 시험에 낙제한 상태였습니다. 악

몽을 꾸 다음날 함께 수강신청했다가 자격시험에 낙제했던 동기생 안 모 군과 함께 용기를 내어 교수님 방을 찾았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리고 시험에는 낙제했지만 강의를 들을 수 없겠는지 여쭙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바짝 긴장해서 가르침을 청하는 어린 제자들이 얼마나 귀여우셨을까 싶습니다만, 교수님께서 특유의 편안대소와 함께 “야이, 이 녀석들, 들어와 들어”하고 허락해 주셨을 때 느꼈던 안도감은 지금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변명 삼아 적어 보자면 겨울 방학 동안 나름대로 고민하여 새로운 진로로 재정학 연구자가 되자는 결심을 한 직후였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한 마음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입학 초기 막연히 경제사를 전공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그 전 해에 수강했던 김종현 교수님 경제사 과목에서 낙제에 가까운 학점을 받고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새로 마음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준구 교수님의 풍모에 대해 흠모하는 마음과 함께 당시 예비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많은 학우들이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는 분위기에도 영향을 받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수님의 허락을 얻어 재정학을 수강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해서는 이승훈 교수님 지도를 받아 미시경제학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 재학 시절에 이준구 교수님께서서는 나중에 당대를 풍미하게 되는 미시경제학 교과서의 초판 원고를 집필하고 계셨습니다. 분에 넘치게도 원고 교정을 도와 드리게 되었습니다. 집

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어 드리지는 못하고, 꼬박꼬박 1주일 분
거의 정량의 원고를 주시면 제 이해가 모자라는 부분을 찾아 질문
드리고 교수님을 독차지한 채 개인교습을 받다시피 했던 것이 또
하나 감사드리게 되는 추억의 단편입니다.

교수님께 재정학도 배우고, 미시경제학도 배우고 하였지만 가
장 소중한 가르침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 그리고 학자의 자세
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 과
정 밟고 캐나다 3년, 일본 4년으로 이어지는 비교적 긴 노닐 유자
(遊) 유학 기간을 거쳐 2003년에 귀국한 후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는 모임에 자리를 얻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야이 김태종이, 너도 꼴통 되어 가냐”하고
들려주시는 일갈,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 싶으실 땐 “경제학을 왜
공부하니, 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 되자고 하는 것 아냐”하
시며 타일러 주시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미웁하고 겁이 많은 탓
에 다 새겨 옮기지는 못하지만, 때로 멈추어 설 때 마음에指南(指南)
이 되는 감사한 말씀들입니다.

교수님께서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회의 풍조
에 대해 걱정하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면 그 초연(超然)한 어조, 소
탈(疎脫)한 언어들에서 맹자(孟子)가 힘써 말했던 호연지기(浩然
之氣)를 떠올리고는 했습니다. 제자가 되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평생 마음에서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스승의 길을 걷고자 애써
오신 노력과 그 기품이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돌이켜 보면 이준구 교수님 처음 뵙고 어느새 30년 가까운 세월 선생님께 배운 은혜가 참으로 깊습니다. 글을 적으며 3학년 봄 수강신청 자격시험에 낙방한 후 정말로 겁을 먹고 포기했더라면 그 은혜가 멀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키보드 위 손가락의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교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호연지기까지는 못가더라도 작은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닫힌 것 같아 보이는 문이라도 한 번 더 두드려 보는 자세로 연구자, 교육자로서 남은 길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가을 저녁의 감사한 시간입니다.

김태종은 97년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한 뒤, 캐나다 요크 대학교,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을 거쳐 2003년 이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해 오면서, 현재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발교육연구실 실장으로 발전경험체계화 연구 및 개발협력 성과 평가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선생님, 저 팬이에요!



* 김희삼(경제학과 88학번)_한국개발연구원

1. 기억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대화로 시작하는 매혹적인, 황당한 문제였다. 학부 1학년 때 과 선배가 이준구 선생님의 재정학 시험에 나왔다면 얘기한 문제는 나중에야 그것이 금전적 외부성을 묻는 것이었음을 알게 됐다.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듣게 된 선생님의 강의는 명불허전이었다. 때마침 나온 선생님의 미시경제학 교과서는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간결한 문체와 쉬운 설명으로 핵심을 전달하는 교과서 집필의 전범이 되었고, 읽으면서 바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기에 대학원 입시에서도 교과서 내용을 떠오르는 대로 적었던 기억이 난다.

경제학부에서 4년간 조교를 했던 나는 선생님께서 부학부장을 하시던 시절을 조교실의 황금기로 기억한다. 결재를 받아본 선배 조교들은 선생님의 시원시원하고 합리적인 결정 덕분에 업무가 수월하고 안심이 된다고 좋아했다. 여름방학이 끝난 후에 조교들에게 점심을 사주시는 자리에서 친구 딸의 수학여행 사진에 현장에는 없던 죽은 고양이가 찍힌 괴사건 얘기로 늦더위를 잊게 해주셨던 기억도 난다.

아쉽게도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선생님과 학문적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다. 선생님을 뵈 기억은 14동 대형 강의실 수업, 결재시간, 그리고 테니스 후에 목에 수건을 두르신 모습이 거의 전부였다. 그러나 정책연구자로 살아가는 지금, 나는 선생님을 가끔 떠올리며 마음속에 사표(師表)로 삼고 있다.

2. 교육

좀 늦은 유학으로 위스콘신대에서 공공경제학을 공부하고 KDI에 온 나는 한국의 교육 문제를 주요 연구과제로 삼았다. 이것만큼은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었다. 종합연구소의 희소한 교육연구자로서 대학서열, 지방대학, 사교육, 영어교육, 초중고 학교효과, 미래인재, 진로교육, 교육재정, 교육복지, 대학지원사업, 입시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다. 그 과정은 경제학자의 상대적 강점과 한계를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다.

복잡한 문제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프레임과 계량적 분석 틀의 장점은 분명 강점이지만, 교육의 핵심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느냐에 있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식견이 부족한 경제학자는 좀 겸손해야 마땅하다. 다른 사회과학분야 학자보다 엄밀한 분석을 추구한다거나 문제를 더 잘 본다면 오만에 찬 경제학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던지라 최근 피케티의 책에 대한 서평에서 착각에 빠진 경제학자들을 질타하신 선생님께 더 공감을 느낀 것 같다.

3. 사회통합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 간 갈등과 계층 간 갈등에 세대 간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사회통합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동안 과소 반영된 최상위층 고소득을 고려할 경우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소득 분배는 더욱 불평등한 모습을 보인다.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이 일을 통해 소득 사다리의 윗단으로 올라설 확률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급락했다. 또한 일반고교에서는 상위권대학을 점점 꿈꾸기 어렵고,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힘들어지면서 교육을 통한 세대 간 계층이동에 대한 비관론이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든 가운데서도 세대 간 계층이동은(낮은 수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 각지의 개천에서 용이 나던 우리 사회에서 높은 소득불평등에 낮은 세대 간 계층이동까지 겹쳐진다면, 미국의 경험에서 좇을 필요가 없는 것까지 따르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진학과 취

업에 부모의 경제력과 연줄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인적자원의 최적배분을 통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분배 문제, 절대로 미국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선생님 글에 담긴 세상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선생님은 소득불평등의 완하나 사회이동성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입에 우려하는 자유주의자를 위해서도 조언을 남기셨다. “민주사회는 분배상의 불평등이 혈연이나 지대가 아닌 능력과 노력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불평등은 공정하며 모든 구성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한에서만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4. 행복

진로교육 강연에서나 미래인재상을 그릴 때나 ‘행복’을 키워드로 떠올리던 나는 오사카대학의 행동경제학연구센터에 머무르는 동안 행복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사람들의 비교성향과 행복의 관련성을 탐구하면서 가상적 상황에서의 선택을 묻는 실험적 설문조사를 이용했다. 방대한 설문지를 만들면서 선생님의 추천글을 보고 읽은 ‘선택의 패러독스’라는 심리학 대중서가 떠올라 그 내용도 문항에 넣었다.

매사에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선택을 방해하거나 선택한 것의 만족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극대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진로교육 강연에서 현실의 제약조건이 발목을 잡는 것이 아

나라 갈 방향을 분명히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할 때 빛나던 청중의 눈을 담아 돌아오면서 선생님을 떠올리곤 한다.

5. 일상

내 기억에 선생님의 넘버원 취미는 테니스였지만, 사진을 좋아해서 손수 찍으신 풍경사진을 나눠주시기도 했고, 화초를 좋아해서 꽃밭을 가꾸시기도 했다. 그리고 휴일 낮에는 가족들에게 짜장면 등 일품요리를 만들어주신다며 흐뭇하게 자랑하시기도 했다.

나는 무릎을 다쳐 선생님처럼 테니스 같은 운동은 할 수 없고 재활 삼아 수영을 했는데, 근간에는 거의 매일 요가를 하고 있다. 꽃꽂한 뻥음과 유연한 숙임을 모두 익혀야 하는 요가수련 중에 학자의 강직한 양심과 자기 한계를 아는 겸손을 말씀하시는 선생님을 떠올려보려고 한다. 그리고 여행 중에 사진을 즐겨 찍고, 세종시로 내려와 시작한 텃밭농사에 재미를 붙여가고, 유학 때 익힌 몇 가지 일품요리를 다시 나눌 기회를 꿈꾸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 여러 면에서 선생님을 닮으려 하는 영락없는 팬이다.

김희삼은 위스콘신대 경제학박사로, 주류경제학과 비주류경제학을 모두 대강은 공부하여 양쪽의 논의를 이해하고 말을 섞을 수 있는 수준이다. 생각이 넓어지는 대화, 여행, 음악, 미술, 신간독서, 요가를 좋아한다.

이준구 교수님과 ‘퇴짜’의 추억



* 노영우(경제학과 88학번)_매일경제신문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두 번의 ‘퇴짜’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무지하게 많은 퇴짜를 받았지만 살면서 항상 머릿속을 맴돌고 기억이 나는 것인 이 두 번의 퇴짜입니다. 한번은 대학원 때, 또 한 번은 신문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돼 취재를 나갔을 때입니다. 두 번의 퇴짜를 맞을 때는 눈물이 핑 돌 만큼 아팠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둬야하나 생각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 회의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었고 한때의 아픔이 나중의 인생에 좋은 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도 이 두 번의 퇴짜였습니다. 그중 한 번이 이준구 교수님께 받은 퇴짜입니다.

대학원 3학기 때에 접어든 지난 1995년 가을 학기 때 저는 이준구 교수님을 찾아 석사 논문을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렸습니다.

당시 워낙 깐깐한 교수님으로 소문이 나 있었기에 첫 만남이 무척이나 긴장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논문 주제는 ‘한국에서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economy)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퇴짜까지 각오했던 저는 교수님께서 흔쾌히 제 논문을 지도해주겠다고 하셔서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3~4개월간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나니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까지 제 연구를 지켜보시던 교수님은 저에게 “서베이는 그 정도면 됐으니 이제 기존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제 논문에 넣을 새로운 것을 찾아서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어떻게 경제적 지대를 측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신 있게 찾아서 가져간 몇 가지의 자료는 교수님과의 토론 과정에서 지대추구 행위의 논거로 제시하기에는 많은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정도의 근거로는 논문의 논거로 제시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좀 더 노력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교수님과 저와의 줄다리기는 계속됐고 제 기억에는 몇 개월간 세 번의 근거자료를 가져갔으나 결국 교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석사 논문 쓰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석사 논문을 접었습니다. 이후 취업준비 기간을 거쳐 신문기자로 매일경제신문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이력서에는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이 아닌 수료로 적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떠난 후 저는 매일경제에서 10년간 경제부 기자

로 생활했습니다. 교수님에 대한 기억도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론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으로 유학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쁜 기자생활로 한동안 잊고 지냈던 교수님과 인연이 그때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기자들은 대부분 언론재단의 지원을 받으면 1년간 안식년 개념으로 미국 학교에 적을 걸어두고 공부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꼭 석사 학위를 받고 싶었습니다. 교수님께 받은 ‘퇴짜’의 오명을 씻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 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 벤더빌트 대학교 석사 과정에 진학해서 ‘늦깎이 학생’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접하는 미국 경제학에 흥미를 느낀 저는 1년 만에 석사과정을 마치고 같은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됩니다. 10년을 기자생활을 한 몸과 마음으로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석사과정에서 느낀 공부에 대한 호기심과 10년 전 서울대학원 시절에 겪었던 퇴짜의 추억이 저를 자극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의 시간을 보내고 박사 학위를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국제무역이고 박사과정 졸업 논문 주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양허관세와 반덤핑 관세 등의 무역장벽에 대한 연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가장 효율적인 관세 시스템을 만들고 현재의 관세 협상을 포함한 무역 제도가 이같은 시스템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형태로 돼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교수는 에

릭 본드(Eric Bond) 교수입니다. 저의 미국인 지도교수도 역시 이준구 교수님처럼 경제 현상을 모델링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한번 실패를 겪으며 교수님께 배운 학술 논문 쓰는 방법이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마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의 논문에 대해 지도교수는 만족해했고 지도 교수와 함께 쓴 논문은 무역 분야 국제 저널인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저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난해 다니던 회사로 복귀해 경제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 오랜만에 만난 선배로부터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앞두고 기념집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지난 1995년에 맺었던 교수님과의 인연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오랜 기간 못 뵈었지만 교수님 제자 중엔 저 같은 학생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떠난 후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런 마음을 담아 몇 자 적었습니다.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건만 교수님과의 인연을 생각하니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한때 서운했던 일들이 제 인생에 거름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젊은 날 대학원 시절에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을 해주신 교수님의 가르침을 늘 되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제자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

님의 정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남은 긴 인생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영우는 미국 벤더빌트(Vanderbilt)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매일경제신문사의 국제부, 증권부, 금융부, 경제부 등에서 기자생활을 했으며 2014년 10월 현재 경제부 차장으로 근무중이다.

이준구 교수님은 제 인생을 바꾸어 주신 교수님이십니다



* 류두진(전기공학부 99학번)_성균관대학교

제가 관악에서의 생활을 일년쯤 남겨두고 있던 2001년 가을, 이준구 교수님의 경제학개론 과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교양과목임에도 이준구 교수님의 명강의에 저는 매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학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해주셨고, 단 하루도 수업시간에 늦으신 적이 없이, 수업시간 내내 1분도 낭비하지 않으시며 열정적으로 수업을 이끄시는 모습을 보고, 그 동안 제가 공대수업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존경과 동경, 그리고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여, 난해한 전공공부(저는 전기공학부 99학번입니다)를 따라가지 못한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이준구 교수님의 경제학개론 수업에 감명을 받아,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무모하게도) 과감하게 전

공과 인생의 진로를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이준구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수업을 수강하였고, 해외연수 때와, 대학원에 진학할 때 모두 이준구 교수님의 추천서에 큰 도움을 받아 제 진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제학과 학생이 아님에도, 이준구 교수님께서 귀찮은 내색 한번 없이 귀한 시간을 내주시며 조언해 주셨고, 기꺼이 추천서를 작성해 주셨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번은, 교수님의 소중한 시간을 제가 빼앗는다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아주 작은 선물하나를 준비해 갔는데, 호통을 치시며 “자네가 아직 학생인데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걸 사오나, 아무 것도 가져오지 말게. 시간은 얼마든지 내주고 추천서도 계속 써줄 테니 언제든지 찾아오게”하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학위를 마친 후 교수로 지원할 때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어떤 교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과 함께 기꺼이 추천서를 써주신 덕분에, 제가 경제학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과 출신이 아닌 저에게도 이렇게 많은 도움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준구 교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교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과 큰 가르침을 받았을까 하고 생각하면, 정말로 부러운 일입니다.

이준구 교수님께서 명저를 저술하시고 명강의를 하시는 훌륭한 교육자인 동시에, “멋있는” 학자이십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과의 면담 후에 테니스 채를 가지시고 테니스장으로 향하시

는 모습, 품격있는 화분과 서적이 가득한 연구실, 디지털 카메라가 막 보급되던 당시에 여행지에서 찍으신 멋진 장소의 사진을 학생들과 공유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감히 이준구 교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학자가 되고 싶다고 열망하였습니다.

이준구 교수님께서 “1시간을 열심히 강의하시면, 수업을 듣는 100명의 서울대 학생들이 100시간을 잘 배우고 이는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이기에, 언제나 강의에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논문편수가 교수들에게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어버린 지금, 저도 연구업적편수에 신경을 쓰는 소심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준구 교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강의준비와 학생들과의 교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랜시간 학교에서 제자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키우는데 모든 것을 쏟으신 교수님께서 벌써 정년퇴임을 하신다니, 아쉽고,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저의 지도교수님을 포함하여 많은 선배교수님들이 이준구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저와 제 친구들은 물론, 후배들까지 이준구 교수님의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만나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준구 교수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두진은 KAIST에서 Finance를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민연금 부연구위원, 한 국외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평소 흠모하던 경제과 선배님들께 배우며, 동경하던 경제학자가 되어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이다.

이준구 교수님과 나



* 박상인(경제학과 84학번)_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님을 처음 뵈는 것은 1986년 대학교 3학년 재정학 수업에서였습니다. 귀국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젊고 자신감 넘치는 선생님이로 기억됩니다. 수업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특정 상황을 서술하고 단순한 모형을 통해 수리적으로 해법을 구해야 하는 시험 문제는 당시 우리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흥미롭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전반적인 교수에 대한 인상은 서구적 사고방식을 가진 엘리트지만 한국 경제나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저는 12년의 미국 생활을 마감하고 2003년 여름에 귀국하였습니다. 그것도 경제학자가 아닌 행정대학원에 부임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아무런 인연도 없었고, 한 번도 이곳에서

교편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못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 발전과 현재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장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던 즈음에 의외로 행정대학원에서 연락이 왔었던 것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귀국하기로 결심했고, 귀국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분주하게 몇 년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대학원에서 교편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 했던 것처럼, 20년 정도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된 이준구 교수님의 활약상도 예상하지 못 했던 것이었습니다. 미시경제학 교과서 저자로 명성을 날리고 계신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경제나 사회 현안에 대해 지식인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시는 모습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제가 뵈지 못했던 2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준구 교수님이 어떤 계기로 오늘의 교수님 모습으로 변모해 왔는지 한편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2012년 이후 저도 본격적으로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주장의 요지이고, 제가 공부한 주류 경제학의 원리와 한국 현실에 대한 10여년 간 저 나름의 학자로서 고민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놀라는 대학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들도 있습니다. 공부만 하는 서생인줄 알았는데 제법 대범한 이야기를 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마 이준구 교수님의 변신도 학자로서 진지한 고민의 결과가

아닐지 제 짧은 경험으로 감히 유추해 봅니다. 교수님 같은 선배,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배운 것에 충실하게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후학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교수님의 모습을 닮아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수, 지식인의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교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칭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졸업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흔히 말하듯이, 정년퇴직 역시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경제와 사회 문제에 대해 우리시대의 어른으로서 사회의 주요 여론을 이끌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받는 원로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이준구 교수님이 큰 대들보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박상인은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리부룩대학 경제학과 조교수로 시작하여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교수 및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존경하는 이준구 교수님께



* 서영경(경제학과 82학번)_한국은행

안녕하세요. 교수님을 처음 뵈는 때가 1984년 가을 학기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입니다. 그 학기에 들은 과목 중에서 유독 교수님의 강의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새로운 분이 오셔서 재정학강의를 수준 높게 가르치신 데다 재정관련 사례 발표를 시키는 등 독특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의시간 중간중간에 교수님의 생활철학을 담은 소소한 이야기도 자주 해 주시고(양꼬가 굳지 않는 찹쌀떡 이야기!), 경제학자 관련 일화나 사회현상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합리적 원칙주의자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재정의 거시·미시적 기능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산업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경해 나가야 한다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희 학년이 교수님을 모시고 다녀온 설악산 수학여행에서 교수님의 또 다른 면모, 제자들에게 매우 다정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졸업후 제가 뒤늦게 공부를 하러가게 되어 추천서를 부탁드렸을 때 직접 추천서를 작성해 주시며 저에게 사실 확인만 하셨는데, 오래 전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시고 세심하게 기술해 주시는 것을 보고 교수님의 정확하면서도 자상한 면모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수님은 어느 분보다도 저희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올곧고 자상한 선배 같은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돌아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한국은행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을 때 교수님 기고문을 언론에서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까지 전문적이고 논리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학자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반대소신을 강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원칙주의자이시나 아카데미아 內에 점잖게 계시며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꺼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 교수님께서 쓰신 ‘어느 케인즈주의자의 고백’을 읽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동안 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내가 전공하고 있는 재정학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소득분배 상태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혹은 온정적 간섭주의의 시각에서 경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그러나)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

문에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카고학파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해 쓰신 글이지만 저를 포함한 정책담당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고민하는 이슈를 그대로 지적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책이 정책입안자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경제상황을 악화시켜서는 더욱더 안 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운 선택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태생적 차이로 인해 선진경제와 다른 우리만의 경제논리를 찾아야 하고, 그나마도 크게 바뀐 경제구조로 인해 계속 수정해나가야 하기에 적절한 정책 선택은 무엇인가, 답은 항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groupthink에 휩싸이지 않고 깨어있는 생각으로 올바른 정책조언을 찾으시는 교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교수님 홈페이지에 들러보니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에게 자상하게 또 엄격한 모습으로 원칙과 기본을 강조하고, 인생선배로서의 솔직한 조언을 전해주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유학갈 때 추천서 부탁하러 왔다가 다녀와서는 인사가 없다..” 이 대목은 저도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자들과의 관계는 저희 때보다도 다소 건조하고 유대관계가 덜 한 것 같아요. 학생들은 교수님 찾아뵙고 학점 때문에 읍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아무튼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이 제자들을 챙기고 이끄시는 교수님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교수님으로서, 인생선배로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시다가 이제 은퇴를 맞으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은퇴(retire)는 tire를 교체하여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의미라고 하더군요. 앞으로도 저희에게 존경하는 교수님으로, 좋은 선배님으로 남으시겠지요. 종종 찾아 뵙고 여러 조언도 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경 배상

서영경은 조지워싱턴대 경제학박사이다. 한국은행 국제경제연구실장, 금융시장부장 등을 거쳐 2013년 이후 조사·통계부문 부총재보를 담당하고 있다.

이준구 선생님, ‘공포의 저격수’에서 ‘이웃집 흰머리 소년’으로



* 성명재(경제학과 83학번)_홍익대학교

경제학과 83학번이었던 나는 학부 재학중 두 분의 신입교수님을 뵈었다. 이준구 교수님, 양동휴 교수님 두 분이시다. 이준구 교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하고도 9개월 전, 1984년 3월의 어느 봄날 관악캠퍼스에 부임하셨다.

모든 것이 새롭기만했던 대학 신입생 시절, 봄날에 피어오르던 개나리의 꽃잎마저 신비롭기만 했다. 그런 마음도 잠시, 이내 시들해져갈 2학년 무렵, 새로 부임하신 이준구 교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빠지지 않았다. 신입 교수님들은 예외 없이 동경의 대상이자 미지의 탐구대상(?)이었다. ‘학점은 후하신지’, ‘예쁜 여자조카를 두고 있으신지’ 등등. 하지만 이준구 선생님은 조금 다르셨다. 부임 첫해 선생님께서는 ‘공포의 저격수’로 다가오셨다, 최소한 내게는.

선생님께서서는 부임 첫 학기에 이웃한 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강의를 맡으셨다. 중간고사 시험에서 상당수가 소위 ‘뽕점’을 받았고, 심지어 한 학생은 ‘-3점’이라는 초유의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다. 소문은 빨랐고, 어느덧 경제학과 2학년 학우들 사이에서 이준구 선생님께서는 ‘F’를 쏟아내시는 ‘공포의 저격수’로 각인되었다.

그러나 그런 오해는 오래가지 않았다. 당시 크게 인기를 끌었던 ‘매치매치바’를 사랑하셨고, 또 학생들에게 나눠주시던 인자하심은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었다.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인기절정이었던 엄모 개그맨과 당시 극강의 미남배우로 이름을 떨쳤던 배우 임성민의 외모를 절묘하게 절반씩 나눠가지셨던 오묘한 조합은 친근한 ‘삼촌’의 이미지를 물씬 풍기셨다.

85년 가을 이준구 선생님의 ‘재정정책론’을 수강하였을 때의 두 가지 사건이 기억난다.

중간·기말고사 시험은 모두 각 두 문제씩. 답안은 문제당 최대 두 줄을 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물론 답안이 두 줄을 넘으면 0점 처리하는 채점기준이 미리 공지되어 있었다. ‘채점의 수월성’만을 목적으로 하신 것으로 생각되었다. 정답은 명쾌했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흑백의 경계가 분명한 문제들이었다. 핵심을 제대로 공략하라는 가르치심이 내재되어 있음은 먼 훗날에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은연중 마음 속에 기억하고 있었는지, 어언 30년이 지난 지금 나도 학생들 시험문제를 만들면서 선

생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재정정책론 강의 중 절반은 그룹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미리 여러 팀을 선정하고 미리 주어진 연구주제에 따라 현황분석, 문제 제기 및 개선방안의 형태로 그룹별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어느 날 동기 강영재 학우가 ‘한강수계 상류지역 축산폐기물 문제’를 맡아 발표를 하고 토론이 이어졌다. 자료준비와 분석 및 정책시사점 등 모든 측면에서 학부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발표가 이어졌고 모든 이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놀라왔던 건 우리를 가르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였다. 정부가 담당해야할 역할론 중에서 ‘공정한 경기의 물’ 제정과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 등이 정책시사점으로 제안되었다. 이 부분을 꼼꼼하게 메모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 앞에서 생생하게 그려진다. 물론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셨을테지만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시고 공부하시고 배우시는 모습이 내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내 자신이 나태해진다고 느껴질 때면 지금도 그때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 자신을 추스르게 된다.

나는 유학중에 결혼을 하였다. 선생님께 제일 먼저 주례를 부탁드렸다. 선생님께서 정중히 사양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우셨을 터. 마흔 한살, 주례를 하시기에는 다소 이른 나이셨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집사람과 그때 일을 생각하면 괜시리 송구해진다. 요즘 선생님께서 후배들 주례 서시는 모습 뵈면서 당황하셨을 그때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에는 ‘청년’이셨는데, 어느덧 지금은 내

가 당시 ‘청년교수님’의 나이를 벌써 열 살이나 훌쩍 뛰어넘었다. 어느덧 선생님 머리에는 군데군데 하얀 서리가 앉으셨고 인자하신 ‘이웃집 할아버지’로 다시 태어나셨다. 그렇지만 피부와 표정, 머금으신 미소는 아직도 열정이 넘치시는 영광 없는 소년이다.

이준구 선생님께서는 열정 넘치시던 ‘청년교수님’에서 친근한 ‘삼촌’, 인자하신 ‘이웃집 흰머리 소년’으로 진화 중이시다. 진화는 계속 진행형이다. 앞으로 삼십년 후 선생님의 더욱 진화하신 모습이 기대된다. 선생님 앞에서 다소곳이 두 손이 모아진다.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야겠다는 각오와 함께.

성명재는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미통상협상과 WTO 주세분쟁 시 정부대표로 활동하였고, 현재 세제발전심의회 위원이다. 분배, 조세·재정분야가 주 연구분야이다.

나의 은사님, 우리 시대의 스승



* 신영철(경제학과 82학번)_대진대학교

교수님과 첫 만남은 1984년도에 교수님께서 모교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부임하시어 2학기에 담당하셨던 재정학 수업에서였다. 당시는 일주일에 서너 번의 데모(시위)가 교내에서 있을 정도로 어수선한 시기이기도 했다. 대학생들 또한 그 시대가 어떤 사명을 요구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대학 3학년이었던 나는 절박한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경제학에 점차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듣게 된 교수님의 수업은 이미 30년이 지났지만 생생하게 남아있다. 첫 시간 시험으로 학생들은 당황하였고, 다른 수업과 달리 재정학에서 흥미로운 소재들을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여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돌이켜 보면, 첫 시간의 시험은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하여 학생들에 맞는 수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이 흥미로운 사례들을 스스로 조사하여 발표하면서, 경제학이 교과서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현실에 내재한 경제원리들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학우들이 경제학에 새로운 흥미와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이후 교수님께서 담당하셨던 여러 강의들은 경제학과 학생들이면 누구나 듣고 싶어 하는 명강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학수업을 통한 교수님과의 첫 만남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 수업에서 외부성과 관련된 ‘양봉업자와 과수원의 사례’를 발표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출발하였지만, 방학 전에 수강 신청하면서 재정학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몇 번의 수업에 참여한 뒤에 알게 되었다.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친구에게 교수님께 내가 발표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교수님께서 “그 친구, 짹새(사복형사) 아냐?”라고 하셨다고 한다. 당시에 사복형사들이 학생을 위장해서 교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그러한 상황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여튼 교수님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씁쓸한 기억을 남기고 지나갔다.

바로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석사 과정에서는 정치경제학에 대한 관심으로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야 교수님의 ‘재정학특수연구’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다. 내겐 교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이기도 했다. 그 수업을 통해

재정학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배우면서 환경자원경제 분야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경제학 전공자들에게 환경자원경제 분야는 생소한 분야였지만, 남다른 흥미를 느낀 그 분야로 논문을 쓰고 싶어졌다. 그러므로 교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은 박사 학위 논문의 주제를 환경자원경제 분야에서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박사 학위 논문의 분야가 박사 학위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은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출발점이 되었다.

교수님과의 세 번째 만남은 논문 지도교수를 부탁드리면서 시작되었다. 교수님께서도 환경자원의 가치 평가라는 생소한 주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논문 작성방법 및 논문 작성하면서 겪게 되는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힘든 때마다 적절한 지적과 따뜻한 격려를 해 주셨다. 그리하여 경제학 박사가 될 수 있었다.

논문 지도받을 때 들었던 두 가지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먼저, 글에는 호흡(숨결)이 있는 거라며 글을 쓸 때 글의 호흡(숨결)을 생각하라는 가르침이 기억난다. 교수님께서도 우리나라 경제학 교과서의 명저이자 베스트셀러인 『미시경제학』, 『재정학』, 『경제학원론』, 『경제학 들어가기』 등을 집필하시어, 경제학 교과서 시장을 미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시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 이러한 혁명은 교수님의 경제학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문필

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 우연히 교수님 홈페이지에 들러보니, “좋은 글을 쓰고 싶으세요?”라는 글에 교수님의 글쓰기 비법을 제자들을 위해 공개해 놓으셨다. 좋은 글은 재능뿐만 아니라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논문 준비하면서 매번 마감일에 정신없어 하던 내게 알려준 교수님의 또 하나의 가르침은 정해진 마감일보다 일주일 전에 일을 끝내라는 것이었다. 그 비결로 교수님은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항상 여유롭게 운동과 취미활동도 하시며 지내시는 게 아닌가 싶다. 요즘도 정신없이 바쁘다는 생각이 들 때면, 교수님의 그 가르침을 떠올려 본다.

지금도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시기에 교수님이 해주셨던 적절한 지적과 따뜻한 격려를 생각하면,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지도교수와 지도받는 학생으로서의 세 번째 만남은 어려운 상황에서만 건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해 주었으며, 나아가 스승의 역할도 알게 해 주었다. 그리하여 교수님은 나의 은사님이시다.

마찬가지로 교수님은 우리 사회에 대한 애정과 학자적 양심으로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혜도 알려주셨기에, 우리 시대의 스승이시다. 박사 학위를 받고나서는 교수님을 우리 시대의 스승으로 만나고 있다.

2004년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논란이 법정으로 옮겨가 논란이 지속될 때, 새만금 방조제 사업의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

는 답변을 법정에 제출하셨다. 또 2008년 “걱정이 앞서는 대운하 사업” 및 2010년 “나는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가?”란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던 대운하 사업 및 4대강사업이 시대착오적이며 환경에의 악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다. 새만금 방조제 및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에 대한 교수님의 글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찬반 진영의 논쟁이 격화되어 이전투구로 비추어져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때, 한 평생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우리 시대 지식인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쿠오바디스 한국경제』(2009)란 저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종합부동산세제 및 교육정책 등에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셨다.

학교에서의 스승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교정되도록 하며 잘한 일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스승은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제와 정책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그동안 교수님께서 쏟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한 것들에 마음아파하실 수도 있으실 것이다. 그러나 교수님의 우리 사회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이성적 판단력은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계속 자라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해 우리 사회가 변화해가도록 하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테니스를 즐기시고 꽃을 사랑하시고 사진 찍기를 좋아하시는
은사님이, 우리 시대의 스승이시기에 더욱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
립니다.

신영철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미국의 Re-
sources for the Future 및 2008년 호주 Monash대학 Centre of Policy Study에서
연구의 기회를 가졌다. 현재는 대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정년을 맞으신 이준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신진영(경제학과 81학번)_연세대학교

이준구 교수님께서 정년을 앞두고 계시다는 소식을 접하니 교수님께서 서울대로 부임하신지 벌써 30년이 넘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교수님을 처음 뵈는 것은 1984년 1월로 기억합니다. 4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같은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아드님이 봄학기부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오시게 되었는데 교수아파트가 정리될 때까지는 권사님 댁에 계시니 인사드리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유학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어머니께서는 새로 오시는 교수님께 인사드리는 것이 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실례를 무릅쓰고 나를 붙들고 바로 집 앞 권사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짐가방도 옆에 쌓여 있는 권사님 댁에서 교수님을 처음 뵈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제가 교수님께서 처음 만나신 학생인 것 같습니다. 4학년에 올라가기 직전이었지만 교수님과 일대일로 상담이나 얘기를 해 본적 없는 학부생으로서는 새로 오신 교수님을 뵈는 것이 무척 어색했지만 교수님께서 친절히 학기 시작하면 한번 찾아오라고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담당하셨던 재정학은 이미 수강을 했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뵈 기회는 없었던 1984년 봄학기 중 하루 마음을 먹고 교수님을 연구실로 찾아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메일 등으로 미리 면담약속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달리 사전에 찾아뵈 시간을 정할 수 없어 그냥 불쑥 찾아뵈었는데 교수님은 저를 기억해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당시 대학원을 졸업하면 6개월 간의 훈련만으로 군복무를 마칠 수 있는 혜택이 있어 일단 대학원에 진학해 보자는 생각이 우선이었고 이후 유학을 가 학위를 마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계획도 없었던 저로서는 교수님과의 그날 만남이 처음으로 해보는 진로상담이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교수님께서 저의 스승이시자 멘토로서 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시며 제가 가야 할 길을 늘 인도해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30년간 저를 포함한 수많은 제자들이 조언과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저도 교수로서 일을 시작하며 연락도 없이 갑자기 불쑥 찾아온 학부생에게 진로상담을 해주는 것이 정말 번거롭고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면서 교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제 자신을 반성해봅니다.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며 우리에게 상담과 조언을, 때로는 위로와 질책으로 제자들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교수님께서 저에게 조교로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조교들은 교수님 연구실에 같이 있으면서 교수님 일을 도와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저에게 그럴 필요 없이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다른 조교들보다는 일이 적은 편이었는데 조교에게도 큰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고 했던 교수님의 배려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다른 조교들의 일과 조금 다른 점이라면 가끔 교수님 테니스 파트너를 해드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가장 중요한 취미가 테니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종종 인원이 모자랄 때면 대학원생 연구실로 나를 찾아오셔서 같이 테니스장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교수님과 테니스를 칠 때마다 교수님은 테니스를 정말 사랑하시고 즐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로 복식 게임을 하셨는데 승부를 따지시지 않고 같이 운동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편하고 즐겁게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기 직전 미국 박사과정 지원을 해두어야 하는데 그때 교수님을 참 많이 귀찮게 해드렸습니다. 지원할 대학의 선정,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때마다 찾아뵙고 일일

이 교수님의 조언을 구했고 군복무 중에 모든 지원서를 보내야 해서 나중에는 동생들이 대신 교수님께 찾아가 추천서를 받은 덕분에 무사히 지원을 마쳤습니다. 그때 박사과정 지원을 한 동기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들 모두 역시 교수님께 큰 도움과 조언을 받아 지원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1988년 2월 제대 후 지원한 대학에서 결과가 오기 시작했는데 외부 장학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지 못한 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석사논문을 대리인 이론에 대해 썼다는 것과 경영대학 박사과정은 장학금을 많이 준다는 선배의 말만 듣고 회계박사 과정에도 지원했는데 꽤 좋은 조건의 장학금이 왔습니다. 자비로 가야할 경제학 박사과정과 장학금을 받고 갈 회계박사 과정 사이에서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카네기멜론 회계박사 과정으로의 결정은 교수님의 격려와 조언이 없었다면 스스로 쉽게 내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때 교수님께서 지도와 조언을 잘 해주신 덕분에 저의 오늘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며 늘 감사해하십니다. 이후로 전공을 회계에서 재무로 바꾸고 학위를 마친 후 홍콩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하여 귀국한 이후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순간마다 교수님의 도움과 격려로 현재에 이를 수 있었다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교수님이 널리 알려지신 가장 큰 이유는 미시경제학과 경제학원론 교과서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 교과서로 강의를 하며 보니

여느 교과서와 달리 교수님의 교과서는 단순히 경제학 이론을 학생들에게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학을 통해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는 사고의 틀을 제공하려는 교수님의 고심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교과서는 학교 수업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많은 고시준비생 특히 재경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통해 우리 사회, 특히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셨다 생각합니다.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교수님이 다르신 점 중에 하나는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사회와 경제 이슈에 대한 글을 쓰시고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의 장을 여셨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 교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무뢰한으로 인해 고생도 하셨지만 경제학적 논리와 합리성으로 4대강이나 종부세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문제나 정책에 대해 설명하시고 잘못된 점에 대한 날카롭게 비판하셔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교수님에 대해 존경스러운 점 중의 하나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라는 사회적 명망을 본인의 영달을 위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었지만 교수님께서서는 그러한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대신 일반 대중과 스스로 소통하시며 우리 사회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애써오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교수님의 가르침과 지도에 크게 감

사드리고 있습니다. 정년을 맞이하셨지만 앞으로도 제자들과 후학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신진영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마쳤으며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3년 홍콩과기대 경영대학 교수를 시작으로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을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재무/금융분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런 교수님이 또 어디에 계실까요?



* 오종석(경제학부 06학번)_서울대학교

이렇게 이준구 선생님을 기념하는 글을 쓰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2010년 1학기에 교수님의 ‘재정학’수업을 수강한 이래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인도로 떠나기로 결정할 때’,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등등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준구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교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경험과 삶의 지혜들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은 비단 경제학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서 많은 선배님들께서 이준구 선생님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법하면서, 교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다음의 예화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이 예화는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서 당시 상황과 최대한 유사하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2010년 1학기, 83동 대형 강의실, 재정학 첫 수업,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잡담을 나누고 있다. 그때, 이준구 교수님이 등장하고 주위는 조용해진다. 이준구 교수님, 교단에서 내려와서 학생들 앞으로 다가선다.

교수님 재정학 첫 수업이지??

나한테 궁금한 것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좌중 적막)

교수님 이렇게 대놓고 질문하라고 하면 또 못해요. ^^*

75분 수업이지? 어차피 너희들은 끝날 때까지 못 나가.

(학생들 폭소)

한참을 기다렸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조용하기만 하다.

교수님 너희들이 질문을 안 하니, 내가 대신할게. 너희들 등록금이 한 200만원 하지? 너네들 생각으로는 다른 학교 친구들보다 너네 등록금이 싼 이유가 무엇인 것 같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학생들 당황.

잠시 후 용기 있는 학생 A가 정적을 깨며 말한다.

학생 A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즉시

교수님 그러면 등록금은 다른 대학들처럼 받으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많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점차, 다른 학생들도 의견을 발표한다.

학생 B 등록금을 싸게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도록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교수님 너네한테 등록금을 3~4배 더 받아도 기를 쓰고 서울대에 오려고 할 걸?

학생 C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래에 바람직한 한국을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교수님 너희들이 졸업한 후에 진짜로 바람직한 한국을 만들 수 있겠나? 나중에 잘 돼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

....

이후, 학생 100명 vs 교수님 1명의 썰전(?)이 이어졌지만, 학생

들의 의견은 교수님의 거침없는 일격에 하나하나 논파되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첫 수업의 썰전은, (서울대) 등록금이 싸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2. 아래 화면의 캡처는 서울대 학내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와 원글 게시자의 허락을 얻어 기재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준구교수님감사합니다 2014.06.18 17:21

필명숨김 조회 수 4457 추천 수 47 비추천 수 -14 댓글 30

미번학기 성적잘주신다고 말씀은하셨지만
정말미리도 자비로우실줄은... 훌쩍

기말을 그렇게 말아먹었는데.. 열심히할것입니다

추천 47 비추 14

선배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준구 교수님께서 처음 교수로 오셨을 때의 별명은 'C' 'D' Player였다고 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은...

Comments "30"

2. (히드라) 2014.6.18 신고 1 0
정말 자비로우시네요!!!!!!!!!!!!!!!!!!!!!!감사합니다!!!!!!!!!!!!

3. (너구리) 2014.6.18 신고 0 0
미번에도 저번처럼 성적뜨면 뺏다고 문자 오나요??

4. 필명숨김 (지렁이) 2014.6.18 신고 1 0
교수님은 사랑입니다 ♡

5. 필명숨김 (달마시안) 2014.6.18 신고 0 0
감사합니다 !!!!!!!!!

6. 필명숨김 (동예) 2014.6.18	신고	👍 0	🗨 0
교수님 감사합니다ㅠㅠ			
7. 필명숨김 (연가시) 2014.6.18	신고	👍 0	🗨 0
이준구 교수님 어떤 수업이죠??			
8. 필명숨김 (여우) 2014.6.18	신고	👍 10	🗨 0
진짜 이게 자비롭게 하신건가요?ㅠㅠ 출석이 중요한가보네요ㅠㅠㅠㅠ			
9. 필명숨김 (얼룩말) 2014.6.18	신고	👍 0	🗨 0
저도 감사해요 교수님ㅠㅠ보고 계시죠...! 강의도 좋았고 특히 수업 시간에 해주신 말씀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10. 필명숨김 (병아리) 2014.6.18	신고	👍 0	🗨 0
교수님.....팬이에요.....♡			
11. 필명숨김 (아크) 2014.6.18	신고	👍 0	🗨 0
감사합니다!!!!!!!!!!!!			
13. 필명숨김 (청둥오리) 2014.6.18	신고	👍 0	🗨 0
자비로우십니다 ㅏㅏ			
14. 필명숨김 (바구미) 2014.6.18	신고	👍 0	🗨 0
자비 그 자체 !!!!!!!!!!!!!!!			
15. 필명숨김 (효모) 2014.6.18	신고	👍 0	🗨 0
준쿠 "The mercy" 리 교수님유ㅏ			

여기서 등장하는 17번 댓글.

결론은???

17. 필명숨김 (참새) 2014.6.18 신고  1  0
준구리♡♡♡♡♡♡♡♡♡♡♡♡♡♡♡♡ 준구짱♡♡♡♡♡♡♡♡♡♡이거 보시면 댓글 하나만 달아주세요
♡♡♡♡♡
18. 필명숨김 (잡자리) 2014.6.18 신고  0  0
♡♡♡♡
19. 필명숨김 (재규머) 2014.6.18 신고  55  1
한 학기동안 수고했네. 이번 학기에는 학점을 최대한 좋게 주려고 했는데 다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 다행이
네. 한 학기동안 잘 따라와줘서 고맙네
20. 필명숨김 (금봉여) 2014.6.18 신고  0  0
19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 lifeis... (종다리) 2014.6.18 신고 [수정내역 (2)]  0  11
재규머/인종 가능?
24. [redacted] (메기) 2014.6.18 신고  2  2
무슨교수님이 스랏을하겠영 스..
25. 필명숨김 (매두기) 2014.6.18 신고  11  3
24/미준구 교수님 스랏하십니다^^
26. 필명숨김 (가재) 2014.6.19 신고  4  0
24/몇년전에 들었을때 스랏가끔 눈팅만 하신다고 하셨어요 ㅋㅋㅋ 본인 별명이 The reader 인 것도 봤다고 하
셨을 ㅋㅋㅋㅋ
28. 필명숨김 (호랑이) 2014.6.19 신고  0  0
요즘 학점 전체적으로 잘들 주나보네요; 써준구 써디 플레이어 이런 별명 있었는데
29. 필명숨김 (매미) 2014.6.19 신고  2  0
시험잘봤다고 생각해서 기본 좋았는데 다들 잘 받았다고 하시니까 원래 제 성적이 아닌 걸 받았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좋네요 ㅠㅠ(?)
30. 필명숨김 (낙지) 2014.9.1 신고  0  0
오늘 경원 개강시간에 이야기하시길 19가 타청했답니다 19글내려주세요

* **힌트** 위 댓글 중에 하나는 교수님께서 친히 달아주신 댓글이다. 물론, 19번 댓글은 아니다. ^^*

오종석은 2006년 서울대 사회대에 입학(2007년 경제학부 진입)하였다. 2010.7.29.~ 2012.5.19.에는 인도에서 한국까지 육로기행을 하였고, 현재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부 중이다.

이준구 선생님을 생각하며



* 옥동석(경제학과 76학번)_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84년 1학기, 선생님께서 서울대에 부임하던 시기에 나는 선생님을 처음 뵈었다. 당시까지 경제학과에는 재정학을 가르치던 분이 이현재, 한승수 두 분 원로 선생님밖에 안 계셨기에, 재정학을 전공하려했던 나에게 이준구 선생님은 큰 희망이 되었다. 유학할 생각을 접고 서울대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가능한 빨리 전임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굳힌 나로서는,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뉴욕 주립대에서 교수생활을 한 후 갓 귀국한 젊은 학자가 서울대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기쁜 일이었다.

나에게서 이준구 선생님과 추억 대부분은 박사논문 지도를 받던 시절이다. 선생님께서는 논문 한 줄 한 줄 모두에 대해 너무도 꼼꼼하게 읽고 지적을 해주셨기에, 논리적 연결에서 어떠한 조그마한 빈틈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나는 이때 선생님께서부터 글

을 쓰는 방법을 배웠다. 논리적 연결들을 치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표현의 노력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표현과 전달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신 선생님의 가르침은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마음에 항상 새기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선생님의 이러한 탁월함이 미시경제학, 재정학, 경제학원론 등 많은 훌륭한 교과서들을 저술한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내가 선생님께서부터 느끼는 또 다른 훌륭한 가르침과 감사함은 학자로서의 기개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개방적인 자세를 항상 갖고 계심에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많은 격변을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나는 우리 사회의 많은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 연구실에서 선생님과 대화하고 토론할 기회가 많았다. 몇몇 부분에서 나는 선생님의 생각과 다름을 당돌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한 적도 많지만, 그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격의없이 대하시며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도 해주셨다. 그때마다 나는 연구실을 나서면서 항상 이런 교훈을 생각할 수 있었다. 선생님과 같이 학자로서의 소신과 선비다움을 잃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이견과 반론, 비판도 극복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특히 선생님께서 재정학을 전공한 같은 연배의 여느 학자들과 달리, 정치권에 전혀 기웃거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정치적 격변을 거

치는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은 자신의 순수한 본심과 다르게 사회에 투영되어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어쩌면 이 시대는 이념과 계층의 대립이 극심했던 역사적인 기간으로, 먼 미래가 평가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시기에 정권의 부침과 교체에 무관하게 학자와 교육자로서 일관된 길을 걸어오신 선생님의 삶이야말로, 2015년 선생님의 정년퇴임을 눈앞에 둔 이 때 비로소, 더욱더 가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정무직의 성격이 강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직을 수행하는 나로서는, 선생님과 같은 분이 지도교수라는 사실 자체를 은근히 내세우며 나를 돋보일 수 있기에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나의 태도는 선생님께 누가 될 수 있기에 죄송하지만, 너그러이 양해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선생님을 뵈지 벌써 30년의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은 이를 까마득한 세월이라고 하겠지만, 나의 뇌리 속에는 그때의 몇몇 기억들은 아직도 얼마 전의 일처럼 생생하기만 하다. 30년의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 가버렸다면, 앞으로의 30년도 과연 그러할 것인가! 그때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선생님과 추억, 선생님께서 주신 가르침과 감사함은 언제까지나 생생할 것이다.

육동석은 서울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7년부터 인천대에 재직하며 재정제도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2013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하였다.

상쾌한 감시자인 선생님



* 윤희숙(경제학과 89학번)_한국개발연구원

우리가 대학원에 입학했던 1993년도에 TA 월급은 7만원이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정말 쥐꼬리도 그냥 꼬리가 아니라 꼬마 생쥐의 쥐꼬리였다. 그래서인지 당시 TA들의 업무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 중 논술식이 아닌 부분의 채점 정도로 국한됐다. 학교에서 지급되는 TA 보수가 그 정도였으니 교수님들이 TA에게 일을 더 시키기도 어려웠을 게다.

이준구 선생님의 TA로 배정받았을 때 약간 뜨악하긴 했었다. 미시나 재정학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시키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좀 했던 것 같다. 그러나 학부 수업을 들었을 때 받았던 이준구 선생님의 이미지가 워낙 합리적인 분이었던지라 ‘에라 무리스러운 걸 굳이 시키시지는 않겠지’하는 막연한 느낌을 갖고 선생님을 찾아갔었다.

선생님께서서는 매주 얼굴을 보자는 말씀을 하셨다. 할 일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자는 말씀이셨지만, 어쩐지 내가 대학원에 제대로 적응하는지, 비뚤어지지 않는지 지근거리에서 감시하고 싶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었다. 다른 선생님들도 당시에 내가 옆길로 새지 않을지 걱정스러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아마도 그때 나는 탈선이 우려돼 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도로 인식됐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팅은 사무적인 느낌이 전혀 없는,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격이었다. 별 생각없이 관성으로 대학원에 입학한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나는 갈 길을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조차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충 남들처럼 하다보면 남들과 같은 길이 놓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곁눈어 있었던 것 같다. 그 미팅에서 선생님께서 이렇다 할 잔소리를 하시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게 되는 느슨하고 마음 편한 미팅이었다.

진로에 대해 별 생각이 없는 내게 무슨 말을 하실 듯 하다 마시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 유학을 가볼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냉큼 쌍수를 들고 환영하시는 것이었다. 유학 또한 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정이었던지라 잔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마음에는 약간 놀라울 정도였다.

나는 지금 그때 선생님 나이가 되었다. 40대 중반의 번잡한 일

상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어린 학생과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살피는 것이 쉬운 일일 수는 없다. 더구나 정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아주 늦된, 철없고 안이한 학생에게 그 정도의 친절과 관심을 할애하는 것은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2년간 매주 대학원 연구실이 있던 7동에서 선생님 연구실이 있던 14동으로 걸어가던 길은 봄의 라일락 냄새와 가을 낙엽 냄새가 묻어 있는 기분 좋은 기억이다.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머뭇거리기만 했던 대학원 시절이 씁쓸한 기억만으로 남지 않게 만들어준 상쾌하고 따뜻한 추억을 가질 수 있어 다행이다.

물론 선생님의 TA 경험이 화보같이 평화로운 시간으로만 기억되는 건 아니다. 생각날 때마다 웃음이 나는 대형 사건도 있었다. 수강생이 300명이 훌쩍 넘었던 인기과목의 시험을 채점하는 것은 상당한 노동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내심 내게 미안하셨던 모양이다. 원래 스타일도 그러시지만 문제를 되도록 짧게 내면서 이해도를 간단히 측정하려고 무진 애를 쓰셨는데, 내 일을 덜어주려고 신경쓰시는 것도 보였다.

한번은 그런 노력의 결정판으로 시험문제의 파격적인 혁신을 시도하셨다. 문제의 답을 안쓰고 빈 공간으로 남기면 각 문제에 할애된 점수가 뺄점으로 처리되지만 틀린 답을 적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다는 방침을 선언하신 거였다. 아무리 봐도, 그 혁신은 장황한 오답들을 읽느라 진이 빠질 나를 배려하신 거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학기의 시험이 유난히 어려웠던지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사람이 속출했다는 거였다. 게다가 마이너스가 무서워 빈칸으로 남긴 학생도 많았는데, 아무 것도 못 쓴 빵점짜리에게 F를 줄 수밖에 없으니 마이너스 점수도 당연히 F여야 했다. 정확한 숫자는 가물가물하지만 40명 정도가 F로 처리됐던 것 같다. 지금같이 학점에 연연하는 세태였다면 생각도 못할 일이다. 나갔으면 그 중에서도 어떻게든 진짜 F를 가리고 나머지는 선처했겠건만, 말을 바꾸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선생님은 애초의 방침을 고수하셨다.

덕분에 난 대량 F 참사의 실행범, 내지 공범으로 취급되었다. 지금도 그때 F를 받았었다고 하는 사람을 가끔 만난다. 그 사람이 우수한 경제학자일 때는 정말 쥐구멍을 찾고 싶을 정도로 민망하다. 물론 같이 웃고 말지만 말이다. 선생님의 다정함과 배려가 전문가로서의 철저함과 만나 뻥사리가 난 경우랄까.

우리 선생님이라는 사적인 관계를 떠나 제3자로서 인상깊은 점을 한가지 꼽자면, 소설가 박완서 씨가 같이 생각난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던 때 내가 다니던 학교에 그가 와서 강독회를 하고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그에게 1970년대 한국에서 그것도 여성이 마흔의 나이에 일을 시작한 용기의 근원을 물었다. 그의 대답은 놀라웠다. 마흔이 돼서야 등단한 게 아니라 마흔이 돼서야 그 자신이 무엇인가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의 분위기나 여성이라는 핸디캡 같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무언가를 시작할 만큼 준비돼 있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

이었다.

박완서 선생과 이준구 교수님이 겹쳐지는 이유는 ‘할 수 있을 때가 돼서 떠밀리지 않고 제대로 시작하는 근성’ 때문이다. 이준구 선생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던 시기에 거의 매일을 댁에 돌아가셔서 자녀들과 저녁을 드셨다. 우리에게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쳤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가르치기보다 같이 고민했다. 논쟁이 붙으면 피하지는 않았으나 시작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던 그가 50이 넘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숙성했을 때 솔직하게 때로는 과격하게 발언하기 시작했다. 하고 싶은 말이 없거나 준비되지 않았어도 말하기를 자주 강요당하는 나에게는 그런 선생님이 참 멋있고 부럽다.

지금 궁금한 것은 이제부터 선생님이 퇴직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가실지이다. 나는 지금 내가 처음 봤을 때의 선생님 나이가 되어 그때의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선생님의 시간이 20년 후 나 자신의 퇴직을 앞두었을 때에도 내게 영감을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윤희숙은 컬럼비아대학에서 박사를 겨우 마친 후 KDI에서 일해왔다. 지금도 만화방과 영화관을 전전하며 경제학에 대한 본인의 적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하고 있는 일과 동료, 스승, 일하며 만난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은 깊다.

1984년 교수님의 첫 강의에 대한 회고



* 이상영(경제학과 81학번)_명지대학교

제가 이준구 교수님을 처음 뵈는 것은 1984년 대학원 입학시험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교수님 강의 내용이 좋다는 소문이 학생들 간에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에 수강신청도 없이 궁금한 맘에 강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장에 들어섰을 때 이미 학생들로 꽉 차 있었고, 저는 거의 맨 뒷자리에 앉아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1984년은 학교 분위기는 그리 학구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해 대학원 시험 경쟁이 워낙 심해서 교수님의 강의는 4학년들한테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의하신 내용은 제 머리 속에 깊이 각인이 되었고, 이후 학문적 방향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까지도 결정하게 될 거라고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강의의 내용은 냉장고를 사려는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아직

도 기억에 남는 부분은 소비자가 좀 더 싼 냉장고를 구하기 위해서 판매점을 돌아다니면서 들여야 하는 추가적인 탐색비용과 이를 통해 얻게 되는 한계효용이 냉장고의 균형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강의 내용과 교수님의 강의 모습이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해에 교수님 강의를 들은 덕에 저는 무사히 대학원에 합격해서 석사학위를 마쳤고, 이후 군대를 석사장교로 마쳤습니다. 1990년 박사과정에 입학하면서 재정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 교수님께 조세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논문을 쓰겠다고 했을 때, 교수님이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학생들이 찾아오면 교수님이 다 지도학생으로 받아주시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교수님이 지도학생으로 받은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현재 제자모임도 대부분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해서 자발적으로 연구실에 놀러오던(?) 학생들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내심 놀랐습니다. 대부분 무슨 학파니 누구의 제자니 하는 국내 학계 풍토에서 학부에서 연구실에 놀러오던 제자들이 나중에 모임을 만들어 교수님과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1997년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7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당시는 IMF 위기로 대규

모 감원과 실직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이었지만, 그 해 취득한 박사 학위 덕에 비교적 대우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99년 우리 사회는 인터넷 기반의 벤처회사 창업 광풍이 불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로 얻은 직장을 뒤로 하고 인터넷벤처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 부동산114라는 회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팔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초기 인터넷시장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유료로 판매할 것인지, 무료로 판매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장 자금이 부족한 인터넷회사들은 소비자에게 저가라도 유료로 정보를 판매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동산114도 이 고민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정보사업의 핵심경쟁력이 소비자의 탐색비용을 최소화하여 소비자 집객력을 높이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객력을 높여 경쟁하려면 소비자에게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1984년 교수님 강의실에서 들었던 소비자 탐색비용과 한계효용의 개념이 15년 후 1999년 부동산114의 무료인터넷 정보서비스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정보공급자인 중개사나 건설회사로부터 회비나 광고비를 받기로 했고, 이후 이 회사는 단숨에 업계 1위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창업 후 일 년 정도를 제외하고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초기사업 모델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제 학교로 와서 학생들에게 부동산경제학을 가르치면서, 교수님께 배운 학문과 삶에 대한 자세는 저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지면에 교수님께 배운 삶의 태도와 지혜에 대해서 전부 쓸 수는 없지만, 언제나 1984년 첫 강의 시간의 추억과 그 이후 배운 것들은 개인적으로 인생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정년을 축하드리고, 언제나 지금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97년 박사학위 수여식 날 이준구 교수님과 아버님을 모시고
서울대학교 교정에서

이상영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KDI 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부동산114 사장을 지냈다. 현재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있다.

이준구 선생님과 추억



*이영(경제학과 83학번)_한양대학교

이준구 선생님과 인연은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부임하신 1984년부터 시작된다. 생생히 기억나는 인연은 내가 대학원 2학년이던 1988년부터 시작된다. 대학원 2학년 재학때 이준구 선생님은 독일 통일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내가 심포지엄의 행사를 도와주는 조교로 역할을 하였다. 심포지엄 준비를 하면서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청사를 처음으로 방문해 보기도 하고, 서울 외곽에 있는 대학에 가기도 하였다. 신라호텔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사회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조교들과 함께 진행을 맡았었다. 세션에 맞추어 자료를 준비하고 명패를 바꾸어 놓고 장소 안내도 하면서, 대학원생으로는 하기 힘든 호텔 식사도 하는 호사를 누려 보기도 하였다.

나는 1989년에는 불행히도 석사장교 시험에 떨어지고 현역으로

군대를 가게 되었다. 군대를 제대하고 유학을 가기로 결정하면서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고민을 하였다.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안에 통일이 어떠한 형태로든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내가 학문적으로 높은 공헌을 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전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통일시 가장 중요한 전공이 될 것으로 그 당시 생각했던 재정학과 체제발전론을 선택하였는데, 재정학이라는 전공과 통일이라는 관심은 뒤돌아 생각해 보니 이준구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내린 결정이었다. 이준구 선생님의 재정학 수업을 듣고 통일 세미나 조교를 하면서 내 머리속에 어느새인가 재정학과 체제발전론이란 세부전공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준구 선생님과 인연이 지금의 나의 전공을 결정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유학에서 돌아와 짧은 연구소 생활 이후 한양대에 자리 잡고는 같은 전공의 후배 교수라는 새로운 지위에서 교수님을 뵈게 되었다. 같은 전공이었기 때문에 한국재정학회에서 자주 뵈었고, 1년에 2번 정도는 선생님과 저녁을 하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가장 긴 시간을 선생님과 함께 보낸 것은 2007년 단양에서 개최되었던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였다. 함께 산책을 하고 식사를 하고, 학회 일정보다 일찍 서울로 돌아와야 해서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서울로 올라오는 시외버스 안에서 교수님과 오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버스 창가로 스쳐가는 풍경 속에서 전공, 가족, 군대 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과 내가 유사한 성격의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였다는 것도 알게 되어 마음이 편해졌던 기억이 있다.

1984년 부임하시어 30년간의 재직기간을 마치시고 정년퇴직을 하시는 이준구 선생님의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곧은 자세로 사회와 타협하지 않고 정론을 펼치신 교수님께 많은 배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영은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2년부터 한양대 재직 중이다. 이준구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재정학과 체제발전론을 전공하였다.

“너 너무 빠르고 바쁘게 살지 말아라”



* 이창용(경제학과 80학번)_국제통화기금

나는 인복을 많이 타고 난 사람이다.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 좋은 아내를 만났고, 존경스런 은사를 만난 운으로 치면 내 동기 누구보다 가장 복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워낙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왔기에 살아오면서 어느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질문을 받으면 대답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준구 교수님이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준구 교수님을 처음 뵈는 것은 199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부임하면서였다. 미국 Rochester 대학에서 조교수로 지내면서 유학생들을 통해 교수님의 명강의와 교과서 시장을 평정한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다. 어떤 분이기예 학생들의 존경과 인기, 특히 스승의 날 여학생들로부터 가장 많은 초코렛 선물을 받는 비법을 가지셨는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처

음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난다. 나중에 교수님과 친해지면서 안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존경심을 가지고 인사를 드렸던 나와 달리 교수님은 나에 대한 첫인상이 매우 좋지 않으셨다고 한다.

이준구 교수님이 처음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셨던 1984년 3월의 일이다. 그때 나는 대학원 1학년생이었지만 Harvard 대학원 입학이 결정되면서 유학 전에 실컷 놀아보잔 마음으로 수업도 들어가지 않고 체력단련(!)에 전념하고 있었다.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교수님께서 테니스장에 와보니 수업시간에 이름을 불러도 보이지 않던 놈이 워크맨을 차고 건들거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 당연히 곱게 보셨을 리가 만무하다. 나중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하시길, 내가 서울대 교수로 지원했을 때 태도와 인성불량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주도하시려다 많이 참으셨다고 한다. 잘못했으면 교수님과 옆에서 지낼 기회를 못 가질 뻔했으니 큰일 날뻔하질 않았는가? 그래도 서울대 교수가 된 다음에 첫인상을 조금이나마 개선한 것 같으니 다행스럽지 않을 수 없다. 테니스장에서 받으셨던 부정적 인상을 테니스장에서 풀어드렸던 것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문우사로부터 교수님 정년퇴임 기념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교수님하면 떠오르는 단어 몇 가지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았다. 외유내강(外柔內剛), 겸손, 강의, 윤리,

원래 교수라는 직업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교수회의를 하면 자기주장을 양보하지 않는 때가 많다. 합의가 어려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던 곳이 이준구 교수님 방이었다. 객

관적이고 자기주장보다 학과와 학교를 우선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학생교육을 희생하는 논의가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일관되게 반대하셨던 것도 교수님이였다. 겉으로는 겸손하시고 부드러우시지만 본인의 가치관에 어긋나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시는 외유내강의 면모를 일찍이 파악했기 때문에 나는 안건 제목만 보아도 이준구 교수님이 좋아하실지 여부를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학원론과 경제학 들어가기 교과서를 쓰면서 교수님과 더 가깝게 되고 교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 두 교과서에 공저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공저자라고 말하기에는 낯부끄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교과서 집필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실력과 평판을 가지신 교수님에 비해 나는 처음으로 교과서를 쓰게 되었으니 펜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었다. 교수님도 감동시키고 역사에 남을 대작을 꿈꾸고 나의 지식 전부를 책에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몇 달의 노력 끝에 초고를 자랑스럽게 교수님께 넘겨 드리고 일주일 뒤에 가면 내가 쓴 글은 대부분 없어지고 반으로 줄여진 새 원고를 주시곤 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문장도 수려해졌고 이해하기도 쉬워졌으니 불평할 수가 없었다. “교수님께 가급적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길게 썼습니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방을 나오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었다. 이렇듯 대학원생이 박사학위 지도를 받는 식으로 교과서를 썼으니 공저자라고 말하고 인세의 반을 받아온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교수님과 함께 한 교과서 집필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보다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 어떻게 겸손하게 글을 써야 하는지 귀중한 교훈을 배운 바 있다. 이를 전수해 주신 것은 교수님을 이어 경제학원론을 계속 발전시켜줄 것을 염두에 두셨던 포석 같은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지금 내가 학교를 떠나게 되어 수차례의 교과서 개정 과정에서 오히려 교수님 도움을 받고 있으니 죄송할 따름이다.

교수님의 제자 사랑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blog를 통해 많은 제자들이 팬클럽에 참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럽기 그지없다. 학교에 같이 있을 때도 스승의 날 찾아오는 학생 수에 감히 도전할 수가 없었으니 지금 와서 새삼 부러워할 것도 없지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서울대학교하면 다른 무엇보다 ‘초코렛 아저씨’를 기억한다. 내 딸 호경, 호정이가 초등학교 때 사무실에 오면 항상 교수님 방에 먼저 들러 초코렛을 받아오곤 했었다. 재작년 호정이가 해외에서 대학생이 되어 서울대학교 summer school에 갔을 때 교수님을 찾아가 점심을 얻어먹고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 내 일에 바빠 학교를 비우곤 했던 나와 달리 제자들에게 꽃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 교수님은 참 교육자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제자들의 존경을 얻기는 쉽지 않다. 학생들이 먼저 애정의 진실됨을 느끼기 때문이다. 작년 경제학원론을 담당해왔던 김영훈 대표가 법문사를 떠나면서 문우사를 창업할 때

다. “그간 믿어온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는 한 말씀으로 새로 시작한 조그만 출판사에 교수님의 교과서를 모두 넘기는데 동의하셨다. 이윤극대화, 효율성, 합리성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라면 한 번쯤 망설여야 할 결정이었지만 사람 사이의 따뜻함과 윤리를 중시하는 교수님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졸업한지 오래된 제자들이 꾸준히 교수님을 찾아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교수님께서 정통 경제학이론보다 행태경제학을 좋아하시는 이유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항상 일관되게 살아오셨기에 정년퇴임 후 교수님 생활을 예측하는 것은 별반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강의를 좋아하시니 서울대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라도 앞으로 제자를 키우시고 계실 것이다. 초중고생 경제학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니 어린 학생들을 위한 경제학 책도 쓰실 것 같다. 일반인을 위한 경제학 책 출판과 blog는 당연히 계속하실 것이고, 무게 있는 경제 비평가로 강연과 신문 컬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지 않을까? 다만 바쁘게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시는 것을 워낙 싫어하시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런 일을 하실 것임에 틀림이 없다. 사람 만나는 것은 팬카페 회원들과 몇 개월에 한번 씩 소풍이나 등산하시는 정도이실 것 같고, 골프는 쳐다보시지 않고 테니스만 계속하시고, 시간 되실 때마다 해외여행을 통해 좋은 사진을 찍고 오셔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보시는 모습이 상상이 된다.

모두들 경쟁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려 다람쥐 쳇바

귀 돌 듯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지만 우리 사회의 뒷자리에서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조용히 생각하고 제자들 교육에 힘쓰시는 이준구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정년퇴임을 맞아 그간 교수님께서 이루어 내신 업적 -학문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수많은 길러내신 제자와 교수님의 교과서를 읽고 배워온 교수님의 지지자들- 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정년퇴임 후에도 계속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조만간 귀국해서 교수님 옆에서 “너 너무 빠르고 바쁘게 살지 말아라”는 꾸중을 다시 들으면서 그간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창용은 미국 Harvard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Rochester 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가르친 바 있으며, 현재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아태국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불확실성에 맞선 ‘독일병정’



* 이태환(경제학부 94학번)_삼성경제연구소

내가 이준구 교수님을 처음 뵈는 것은 1994년 1월, 대학입시 본고사장에서의였다.

1994년에 입학한 우리 동기들은 다소 특이한 入試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해 최초로 도입된 수학능력시험에 1년에 2회 응시할 수 있었고, 학교에 따라서는 대학별고사(‘본고사’라 통칭했다)까지 치러야 했다. 1차 수능과 2차 수능 간 난이도 조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1995년 입학생부터는 예전처럼 1회만 수능 응시가 가능해졌고, 대학별고사도 점차 유명무실해졌으니, 94학번의 경험은 결국 유일무이한 것이 되고 말았다.

아무튼 대학입시 과정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본고사를 치러 서울대학교에 갔다. 시험감독을 맡으신 교수님 두 분께서 강의실에 들어오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준구 교수님과 오성환

교수님이었다. 추운 한겨울날 몸도 마음도 잔뜩 얼어있는 10대 수험생들 앞에서, 두 분 교수님은 특유의 재치있는 입담으로 분위기를 녹여주셨다. 시험지를 받아들이기 전 초조한 상황에서도 두 분 덕분에 왈카하게 웃음을 터뜨릴 여유가 생겼으니 참 고마운 분들이다.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라는 분들에 대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입학하면 듣게 될 강의들이 뭔가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생겼다.

‘副本’감독이시던 오성환 교수님께서 들고 다니시며 답안지에 찍어주시던 ‘正本’감독 교수님의 도장에는 ‘이준구’ 세 글자가 선명했다. 그때는 입학이 결정되기도 전이니 미시경제학 분야의 명강의 및 명저로 유명하신 이준구 교수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선생님의 성함만은 내 가슴 깊이 새겨졌다. 나중에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 친구들이 나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사 날 이준구 교수님께서 내게 강렬한 첫 인상을 남기셨지만, 나도 나름대로 선생님께 인상을 남겼던 모양이다. 내가 그날 교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예의라든가 격식에 대한 고려 때문에 교복을 입은 것은 아니었다. 평소에 모의고사 볼 때마다 입고 있던 교복을 시험장에도 입고 가면 더 익숙한 느낌이 들고 마음이 안정될 것 같아서 입고 간 것뿐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험장 안에 교복 자켓을 입고 벵타이까지 매고 앉아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내가 2학년이 되어 이준구 교수님의 미시경제학을 수강하게 되었을 때, 처음 질문을 하러 연구실로 찾아본 자리에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자네 본고사 볼 때 교복 입고 왔었지?” 1년도 넘게 지난 일을, 그 많은 학생들을 매일 접하시면서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은 예상밖의 놀라운 일이었고, 선생님께 내가 뭔가 인상적인 기억을 남겼다는 사실이 참 기뻐다. 선생님께서는 그만큼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가볍게 던지시는 유머러스한 말씀 속에도 그런 관심과 사랑을 담뿍 담아서 전해주시는 분이였다.

선생님께서는 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을 해 주셨고, 그 중 몇 가지는 지금까지도 내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인생에서의 불확실성에 관한 말씀이다. 선생님께서 考試공부를 권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언젠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신 일이 있었다.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므로 기억이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기억하는 바에 따라 선생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고시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행위다. 정해진 길 안에 자신을 가둠으로써 불확실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바보스러운 행동이다. 인생은 그런 식으로 살아지지 않는다. 계획된 대로 풀려나가는 일은 그리 많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더욱 그렇다. 그러니 불확실성을 없애버리려고 죽은 지식을 암기하고 스스로 선택의 폭을 줄여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

야 한다. 인생을 마주할 때 큰 방향성은 갖고 살되, 구체적인 선택 가능성은 되도록 다양하게 만들면서 살아야 한다.

스무 살을 갓 넘을까 말까 했던 내게, 선생님의 이런 말씀은 가히 충격이었다. 많은 서울대생들이 그렇듯이, 나도 그때까지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미래계획을 세우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몇 살 때까지는 무엇을 하고, 그 후 몇 살 때까지는 무엇을 이루고..., 이런 계획들이 꽤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삶을 대하는 내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선택의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선생님께서는 ‘제대로 된 경제학은 어차피 대학원에서 배운다. 학부 때는 경제학 전공은 필수적인 것만 들고 가능한 한 교양이나 他科 전공과목을 많이 들어라’라는 구체적인 주문도 하셨는데, 나는 관악캠퍼스에서 이를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했다. 수학과에 찾아가서 해석학을 듣고 고고미술사학과에 가서 ‘르네상스와 바로크 미술’을 수강했으며, 서양문화사, 음악사, 과학철학, 희랍 로마 문학, 생명과학, 대중매체 등과 관련한 다양한 교양과목을 들었다. 이를 통해 접한 지식과 思考의 체계는 지금까지도 내 생각의 뿌리가 되고 있다. 선생님 덕택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知的 풍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학부를 졸업한 후에도 ‘큰 방향은 추구하되 가능성을 열어놓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軍생활에서도, 연애와 결혼에서도, 유학생들과 직장 선택에 있어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선생님께

서 하셨던 말씀이 정말 옳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된다. 인생에서 정해진 길만 따라가는 것은 바보스런 일이다. 삶이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선택의 기로에서 마음이 편해지고, 쓸데없는 후회를 줄일 수 있다. 내가 유학을 떠나려 할 때 선생님께서는 ‘자네가 한국적 모범생의 껍질을 얼마나 빨리 깨느냐가 유학생 활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고백하자면 이 부분에서는 내가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쉽다.

요즘도 나는 구체적인 인생계획이라고 할 만한 것은 2~3년치 정도만 세우고 살아간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음악을 사랑하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역할을 다하는 경제학자’로서 살겠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인생이 풀려나가는 대로, 내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살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이야기를 남들과도 적극적으로 나누고 싶다. 20~30대의 후배들이 진로문제에 대한 고민을 내게 털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나는 언제나 ‘내가 대학생 때 이준구 선생님께 들은 말씀인데...’ 하면서 선생님의 삶의 철학을 전해주곤 한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불확실성이 곧 인생이다.

선생님의 젊은 시절 별명은 ‘독일병정’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선생님은 자기관리가 무척 철저하신 분이요, 동료에게나 제자에게나 예의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제자의 결혼식 주례를 맡으시면 감기가 드실까봐 사람 많은 곳을 피해 다니실 정도다.

2000년대 이후 선생님께서는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논



1998년 2월 이태환(제일 왼쪽)의 학부 졸업식 당시 선생님 연구실에서.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는 94학번 문소영(現 코리아 중앙데일리-인터내셔널 뉴욕타임스 문화부장), 맨 오른쪽은 94학번 윤상기(現 금융위원회 서기관)

쟁에 뛰어들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셨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선생님 성함이 오르내리곤 했다. 그런 과정에서도 선생님의 인품에 대해서는 감히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요즘같이 소위 ‘악플’이 횡행하는 시대에, 선생님께서 무지한 사람들의 인신공격에 휘말리지 않으신 것이 제자로서 무척 기쁘고 다행스러운데, 이는 결국 선생님께서 독일병정처럼 한결같이 자기관리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생님을 직접 보면 독일병정같은 딱딱함보다는 편안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진다. 제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틈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話術’은 얼핏 보면 兩立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체화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준구 선생님의 가장 큰 매력이다.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신 이후 지금까지 매년 학생들이 名講으로 손꼽는 강의를 하시고, 경제학을 한다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게 되는 名著들을 집필하셨다. 이것도 그동안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독자들을 편안하게 해 주시면서도 부단하게 자기관리를 하신 결과일 것이다.

언젠가 선생님께서 私席에서 내게 ‘사실 자네도 독일병정같은 데가 있어’라고 말씀하셨다.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닮은 점이 있다고 말씀해주시다니. 정말 큰 기쁨이요 영광이었다. 앞으로도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 독일 병정처럼 바르게, 인생에서 벌어지는 불확실한 사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꾀꾀하게.¹⁾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일 것이라 믿는다.

이태환은 공군장교로 복무 후 美 스탠포드(Stanford)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부터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에서 거시-재정분야 수석연구원으로 일해 왔으며, 현재 독일 에센에 있는 라인-베스트팔렌 경제연구소(RWI)에 방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준구 선생님의 말씀들이 인생의 주요 갈림길에서 큰 역할을 하였고, 선생님께서 결혼식 주례까지 맡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

1) 이 글을 쓴 곳은 독일 에센이다. 필자는 2014년 3월부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1년간 휴직을 하고 독일 RWI(라인-베스트팔렌 경제연구소)에서 방문연구자로 일하고 있다. 사실 이번 방문은 前年 11월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기회였다. 인생이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는 이준구 선생님의 말씀이 올해 특히 필자의 가슴에 와 닿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안식



* 전영준(경제학과 83학번)_한양대학교

“너는 육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칠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찌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레위기 25장 3-4절)”

안식년이 이제 반을 훌쩍 넘어섰다. 인생의 첫 안식년을 허락 받아서 여기 밴쿠버에 온지도 이제 9개월이 됐다. 헤어져 있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한 것도 오랜만의 일이다. 기러기 생활한 것도 이제 5년 반을 넘어서 6년을 향해 가고 있다. 보고 싶다가도 어떤 때는 미워지는 아내와 그리고 머리에 떠올리면 그저 눈물 나게 하는 아이들과 지내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경험하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종종 느끼곤 한다. 직장을 두 번 옮기면서 안식년을 얻을 기회를 두 번 잃어버리면서 마음

의 여유를 가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었는데, 퍼내 쓰기만 해서 물이 말라가는 우물과 같은 느낌에서도 조금은 해방된 느낌이다. 이래서 안식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다른 직업군이 누리지 못하는 호사를 즐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도 느낀다.

안식년을 이용하는 특권을 선생님께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들었다. 왜 그러셨을까? 안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신 건가? 하기야 기러기 생활은 하지 않으셨으니까. 선생님께서는 자녀들을 직접 정성스럽게 키우셨다고 들었다. 아니면 에너지가 남달리 항상 충만하신 때문인가?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선생님을 처음 뵈 이후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점을 종종 느끼곤 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강의할 수 있는 공포의 이빨, 질문에 대해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풍성한 지력(아마도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대답을 하신 적도 있지 않았을까? 그때는 내가 무식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 아닐 수도 있고...), 여러모로 보나 에너지가 충만하신 선생님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종종 모이는 선생님 제자모임에서도 항상 좌중을 압도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그 에너지가 상당히 남아있는 것 같다. 하기사 모이는 제자들도 젊은 편은 아니다. 모임에 참석하는 제자들도 50줄을 넘어선 제자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어리다고 해도 40을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다. 항상 힘차고 젊어 보이시던 선생님도 이제 몇 개월 후면 정년퇴임을 하신다. 특징인에 대한 인상이 선입관에 많이 좌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인상은 많은 부분 대학시절 선생님 수업을 들을 적 선생님께서 30대 중반의 모습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선생님도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선생님은 항상 젊은 시절 에너지가 충만한 그분만으로 남아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선생님께서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일상에서 떠나 안식하고 싶으신 적도 있었으리라... 앞만 보고 달려오신 선생님께도 잠깐 동안의 안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 동안 경작 후 1년 동안 그 땅을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으리라... 6년 경작 후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쉬는 일 이외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때로는 일상에서 떠나 충분한 안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는데...

선생님을 오랫동안 뵙고 싶다. 졸업 후 몇 년 동안 종종 무소식이다가 개인 사정으로 찾아뵈었을 때, 내가 답답할 때만 찾아뵈는 때에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애쓰셨던 의리 있는 선생님을 오랫동안 뵙고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싶다.

선생님! 잠시 동안 안식하십시오. 이제껏 해본 적이 없는 몇 가지 일들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그리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같이 일하는 기회가 있으면 더욱 좋고요. 성경말씀에 영구 퇴직은 없습니다(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요).

이천십사년 시월, 밴쿠버에서

전영준은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재정학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이후, 한국조세연구원과 인천대학교를 거쳐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이다.

내가 기억하는 이준구 교수님



* 조명환(경제학부 93학번)_서울시립대학교

1993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우쭐한 마음으로 대학생
활을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러 직장
을 잡고 가정을 꾸려가는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처
음 뵈었던 것이 저의 대학생활 시작과 함께였는데 제가 학생 티를
벗겨내는 동안 어느덧 교수님께서 정년을 준비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음에 많은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수님께서 제게 베풀어주신 일들을 이 자리를 통해 한번 떠올려
보려 합니다.

제가 교수님을 처음 뵈었던 것은 1993년 교수님의 경제원론 수
업 수강하는 동기 친구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강좌
를 수강하느라 교수님의 수업을 직접 듣지 못하였지만 동기들로부
터 교수님의 강의를 열정적이면서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

다. 당시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한 동기들을 살짝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끝난 후 교수님의 학점이 예상 밖으로 인색하셔서 교수님의 강의를 재미있어 했던 동기 중 많은 친구들이 재수강을 준비하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저도 당시 경제원론을 재수강해야 하는 처지였기에 그 친구들이 안타깝지는 않았습시다만 교수님은 매정한 분이라는 오해를 했었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직접 뵈었던 것은 1994년 미시경제학 과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주위의 똑똑한 친구들을 보면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진지 오래였고 공무원 시험을 봐야하나 회사 취업을 준비해야 하나 막연한 고민만을 하면서 열심히 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수업에서 무슨 행운이 작용했는지 A+의 학점을 받았습니다. 대학 입학 후 처음 받아보는 A+였고 그것도 학점에 인색하다고 소문난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A+라 해도 친구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교수님과 개인적인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교수님과의 면담은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교수님은 저를 정말 편안하게 대해주셨고 교수님의 매정함에 대한 저의 오해도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저에게 공부를 계속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부에 자신없어 하고 있는 저에게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학점을 받은 사람은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과의 면담 이후 저는 경제학의 여러 분야 중 미시

경제학이 웬지 적성에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제학 공부를 계속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미시경제학을 전공으로 경제학 공부를 계속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않고 교수님과의 면담 기회가 없었다면 저의 현재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조언에 영향을 받아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 교수님의 수업조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교수님을 가까이서 뵈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했던 때로부터 10년 가까이가지났는데도 교수님의 강의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때마다 보여주셨던 열정과 유려하면서 거침 없는 화법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인기있는 교과서의 저자 직강 수업이라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큰 매력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당시 저는 교수님의 수업조교를 시작하면서 교수님 수업에 학생이 너무 많아 조교로써의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당시 조교로써 교수님의 수업을 도와드리면서 특별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교수님을 도와드리면서 학생들과 수업에 대한 교수님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고 가끔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강의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변하고 그에 따라 강의도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교수님 강의가 여전한 인기를 누리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보니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강의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교로써 옆에서 보았던 교수님의 모습을 종종 떠올리며 저 역시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이 되어보자고 다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수님께 여러 도움을 받아왔지만 그중에서도 크게 두 번의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교수님께 추천서를 부탁드린 일이고, 두 번째는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주례를 부탁드린 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자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추천서를 써주시고, 저희 결혼을 지켜보며 축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천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으나 좋은 내용을 써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교수님의 추천서 덕분에 무사히 미국 유학길에 올라 학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아내를 미국 유학생할 중에 만났으니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가정을 꾸리게 된 것도 교수님의 도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결혼을 축하해 주시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가끔 제 아내와 함께 교수님을 찾아뵈면 교수님은 요리와 육아 이야기를 하시면서 좋은 남편이 되는 팁을 알려주시곤 합니다. 제 아내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는 바람에 교수님의

팁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는 못했지만, 항상 제 아내에게 부족함 많은 남편임을 인식하고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교수님께서 제게 베풀어주신 많은 일들 중 몇가지를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철없던 대학생활 중에 학자의 길을 걷겠다고 결정하게 되었고 대학 강단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를 만나 한 가정을 꾸리고 좋은 가정의 모습을 찾는데 있어서도 교수님의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항상 서울대 교정에서 교수님과의 이런저런 인연을 이어왔는데 이제 서울대 교정에서 교수님을 뵙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정든 교정을 떠나서도 계속 연락드리고 부족한 제자가 발전해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찾아 뵈 때마다 언제나와 같이 항상 건강하고 위트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어느날

제자 조명환 올림

조명환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서울시립대 경제학부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적 자만심에 빠진 우물 안 개구리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신 이준구 교수님



* 조성욱(경제학과 82학번)_서울대학교

경제학과 82학번인 저에게 이준구 교수님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저랑 동기들이 3학년이 되었던 1984년에 서울대로 갓 부임한 이준구 교수님의 재정학을 수강하였습니다. 80년대 초반은 시대적 요구였던 민주화 투쟁에 동참한 운동권 학생들과 이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으로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된 경우도 종종 있긴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82학번은 기존보다 입학정원을 늘리는 대신 졸업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사전에 정해 놓은 소위 졸업정원제에 의해 입학한 2기였습니다. 저희는 엄격하게 적용된 학점관리의 일환으로 상대평가제의 위협과 무시무시한 학사경고의 위협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수업으로 악명이 높았던 미시경제학, 경제수학, 경제통계학 등의 수업



학생들에게 최고로 인기가 많았던 교수님과 처음으로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는 영광은 조성욱이 차지했고, 이를 질시한 여학생 전원과 남학생들의 난입으로 결국 단체 사진을 다시 찍었다.

에서 “F” 학점을 피한 것으로 2학년 전공필수 과목을 무사히 마치고 생존했다는 기쁨을 누리며 3학년에 진학하였던 저희는 유지하 게도 지적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학부 2학년을 겨우 마치고는 경제학에 대해 날카로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 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념적인 논쟁에 익숙해 있었던 저희는 나름 성숙한 사고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정학을 수강한 이유는 창피하지만 단순하였습니다. 자연대 수학과와 통계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며 해외유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에게는 투입시간이 적어도 되는 친절한 과목이었습니다. 정부관료가 되기 위해 재경 분야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어 차피 알아야 할 제도를 사전에 공부하는 암기과목이었습니다. 암



교수님의 서울대 부임 첫해인 1984년 가을 설악산 수학 여행에서 82학번들과 찍은 사진

기과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최적화 문제는 어떻게 주어져도 깔끔하게 풀어내는 훈련에 익숙했던 경제학과 학생들에게 재정학은 학점을 따기 좋은 과목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수업을 들었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과 시험을 통해 “충격”을 경험하였습니다.

교수님의 재정학 수업은 저희로 하여금 경제학이 정부가 정책에 관한 의사 결정에 사용될 때 고려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경제학도로서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였습니다. 교수님은 저희를 담금질하듯 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단련하였습니다. 1-2학년 때 방식으로 수업에서 얻은 지식을 기술하거나 또는 주어진 수식 문제를 푸는 것에 익숙했던 저희는 교수님 수업과 시험도 비슷한 방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온갖 시나리오

분석으로 넘쳐났던 중간고사의 평균점수는 ‘저희가 제대로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중간고사 점수를 받아 들고 저희는 우울하고 위축되었습니다. 기가 죽은 저희들에게 교수님은 본인이 박사학위를 받은 프린스턴과 교수생활을 했던 뉴욕주립대의 학생들에게 주었던 시험과 내용이 비슷하고, 저희에 대한 평가는 그쪽 학생들과 견주어서 평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최고라고 우쭐대던 저희가 “우물 안 개구리”였음을 시험을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높은 잣대를 적용함에 따라 저희는 중간고사 이후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일단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형화된 상황이 아니라 경제학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서 이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기말고사에서 평균점수는 중간고사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또한 저희에게 처음으로 그룹별로 가상의 정부 재정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하라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속했던 그룹은 강원도 개발을 위해 홍수가 자주 나는 지역에 댐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가상의 사업을 맡았습니다. 댐과 도로 건설에 따른 사적 비용과 사적 편익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 그룹은 댐 건설에 따른 홍수 예방이 갖는 여러 효과의 하나로 인명피해가 감소한다고 가정하

고, 인간의 목숨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또한,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혼자 문제를 푸는 것에 익숙한 저희는 대학에 들어와 처음으로 그룹 프로젝트를 하였습니다. 세미나실이 없었던 시절이므로 저희 그룹은 중앙도서관의 6층 열람실에 있는 커다란 테이블에 둘러 앉아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나누고 이를 구체화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개념 및 논리 정리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을 하고, 다음 각자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할인율로 사용하기 위한 이자율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목숨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한국에서 매년 홍수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 수, 이들의 예상 소득, 예상 수명 등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작업을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도로건설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통시간 단축에 따른 연료절감의 효과, 절약된 시간의 기회비용,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향후 성장률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용측면에서도 환경오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없던 시절이므로 도서관에서 저희가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정답이 있는 수식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룹 멤버들을 설득하고 논쟁을 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수업을 들었던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서울대에 오셔서 가르친 첫해 수업이기에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의존할 경험 있는 선배들도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정 부라는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배웠던 지식을 간단한 수식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책과 제를 이해하고 정책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입학 이후 처음으로 그룹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같이 웃고 놀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과제 분담을 어떻게 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효율적인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중간에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타인의 분석내용과 방법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피드백을 넣고 어떻게 설득할 지, 그리고 편집에 최종 책임을 지는 부담감이 무슨 의미인지를 배웠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제출하던 날 “해냈다”라는 희열을 느낀 것은 저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경영대에서 기업재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제 수업을 통해 배운 재무금융 지식을 기업재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적용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수님 수업에서 얻었던 경험의 일부를 제 학생들도 제 수업을 통해 얻을 수만 있다면 저도 교수님처럼 성공한 교수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욱은 서울대에서 경제학과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뉴욕주립대 알버니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하였고, 한국개발원(KDI)에서 재벌과 공정거래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고려대를 거쳐 모교인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은행산업 및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정의기반(正義基盤) 위에 바로 선 자본주의를 위하여



* 주병기(경제학과 89학번)_서울대학교

내가 이준구 교수님을 알게 된 것은 경제학과 2학년이던 1990년 봄 학기 전공필수과목으로 미시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부터였다. 나는 격동의 1987년 서울대 천문학과에 입학하였고, 당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근간이 된 급진적인 사회사상에 빠져 있었다. 천문학에 대한 소싯적 꿈을 접고 1989년 경제학과에 재입학하였고, 그 후에도 학과 수업을 뒷전으로 하고 동아리 활동과 동아리 세미나에 몰두하고 있었다. 1990년 봄 학기, 당시 김완진, 김태성, 이승훈, 이준구, 정기준, 이 다섯 분의 교수님들께서 미시경제학 강의를 개설하고 계셨다. 돌이켜보건 데, 쟁쟁한 이 분들의 명강이 한 학기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당시는 미시경제학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

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동아리 일정에 강의시간을 맞추는 것이었고 이준구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주류경제학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지배했던 나에게 미시경제학 그 자체가 관심사가 될 수는 없었다. 수업에 출석하고 시험을 치는 등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데 만족할 뿐이었다. 당시 선생님에 대한 기억에는 직선적이고 거침없는 특유의 화법과 어린 내가 이해하기 어려웠고 이해하려고 조차 하지 않았던 선생님 나름의 소신에 찬 눈빛과 열정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를 기점으로 그때까지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만 생각했던 근대철학과 실증과학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기 시작하였다. 나는 특히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와 연역적 형식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근대철학, 수학, 수리 경제이론 등에 몰두하였고, 4학년에 접어 들어서에는 경제학과 대학원 진학이라는 목표도 세우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나는 다시 이준구 교수님의 강의와 저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훨씬 더 진지하게.

당시 선생님의 미시경제학과 재정학 강의는 경쟁이 치열했던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경제학과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그때 난 선생님의 쉽게 넘어가는 강의와 기술적 구체성이 생략된 설명들에 실망하는 일이 많았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선생님의 강의와 저술은 나를 경제학의 폭넓은 영역들과 다양한 주제들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된다. 내 스스로 강의를 거듭할수록 쉽게 강의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절

감하게 되고 선생님의 강의에 대한 기억은 빛을 더해가는 것 같다. 강의 내용 이외에도 선생님의 탈 권위적이고 간결한 스타일이 돋보였고, 학생들에게, 특히 여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시는 듯도 하였으나, 그 정도의 차별은, 나 자신도 10년 이상 교직에 있으면서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선생님의 저술 중 나에게 가장 고무적이었던 것은 1989년 다산출판사에서 발간한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이다. 이 책은 현대 정치철학의 핵심 분야인 분배적 정의론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소득분배의 경제 이론과 현실응용을 다루는 한국 최초의 저술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치철학의 현대적 이론들을 경제적 자원배분과 제도의 평가와 결부시키고 규범경제학의 체계를 제시하는 저술은 드물다. 특히 선생님의 저술처럼 쉽게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저술은 찾기 힘들다. 찾아본다면 하우스만(Daniel Hausman)과 맥퍼슨(Michael McPherson)이 저술한 『경제분석, 도덕철학, 공공정책』(주동률 옮김, 나남)이란 책이 있을 것이나, 선생님의 책보다 7년 뒤인 1996년에 그 초판이 출간되었다. 따라서 선생님의 책은 선구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책에서 선생님은 소득분배의 적절한 규범적 평가를 위해서 정량화된 지수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로와 그에 대한 공평성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자격(資格, desert)과 보상(報償, compensation)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소득분배

에 대한 높은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공평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함을 지적하셨다. 선생님은, 책이 출간된 1980년대 말에 폭발한 대중의 분배적 불만이 바로 경제개발 과정에서 빚어진 “자격 없는 보상”, “체계적인 차별”,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신뢰의 결여에 있음을 강조하셨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낮은 사회적 신뢰와 높은 갈등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통합과 지속적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나는 이 1989년 저술에서의 선생님의 지적이 한국의 역사적 제도적 특수성을 관철하는 통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애석한 일이지만, 이런 통찰은 2014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의 “정의 기반(正義基盤)” 위에 바로 선 자본주의는 아직도 우리에게 큰 숙제로 남아있다.

정년은 단지 형식일 뿐, 앞으로도 선생님의 통찰의 칼날이 더욱 빛을 발하기를 기원한다.

2014년 10월

주병기

주병기는 2001년 로체스터대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였고 캔사스대와 고려대를 거쳐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에 재직하고 있다. 미시경제학, 재정학, 정치경제 등을 강의하고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와 국제학술지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스승님의 추억



* 차문중(경제학과 80학번)_한국개발연구원

I. ‘스승’을 네이버에 치면 ‘자기를 가르쳐 인도한 사람’으로 나온다. ‘사사하다’를 치면 ‘스승으로 섬기다 또는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다’로 나온다. 그렇다면 이준구 선생님은 나의 스승이시고, 나는 직접 강의를 듣는 ‘은혜’는 입지 못했지만 이준구 스승님을 사사한 것이 분명하다.

II. 스승님은 내가 학부를 졸업하던 해 여름에 부임하셨다. 유학을 갈까 취직을 할까 고민하며 대학원 강의실과 농구장, 테니스장을 들락거리던 나의 귀에도, 미국에서 슈퍼스타 한 분이 오신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들려왔다. 그 빈도가 점점 잦아지더니, 어느 날 귀국하셨다는 말로, 또 어느 날에는 출근하셨다는 말로 바뀌었다. 스승님은 오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들에겐 소방차보다 유명

하셨던 거다. 그리고 오신 그 날부터, 미국에서 오신 스타를 알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줄이 스승님 연구실 문 앞에 기일게 늘어지기 시작했다.

III. 잠시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보자. 변함없이 해매고 있던 나는, 그런 나를 안쓰럽게 여기신 또 다른 스승님(혼란을 피하기 위해 ‘교수님’이라고 하자)께 잡혀서 그분의 연구실 문간 책상에서 경제학의 천자문을 느릿느릿 떼고 있었다. 매미가 미친 듯이 울어대는 어느 여름날, 교수님께서 돌부처처럼 좌정하고 과골삼천하시는지라, 나 역시 억지춘향으로 책상 앞에 앉아있긴 했지만 그건 참으로 참기 어렵고 힘겨운 일이었다. 에어컨은 꿈도 못꾸던 시절, 선풍기가 교수님을 중심으로 늪은 해바라기처럼 서서히 돌고 있는데, 바람 좀 통하라고 살짝 열어놓은 연구실 문밖에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조금 후 아주 사알짝 문이 조금 더 열리며 “애! 차문중!”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스승님께서 교수님 안보이는 각도로 비껴서신 채(선배교수님이 무서우셨나보다) “더운데 뭐 좀 마시러 갈까?”하고 속삭이셨다. “네? 뭐를요?”하고 속삭이니 “.....음.....우유!”하시는 게 아닌가.음.... 우유라니! 이 더위에 맥주도 콜라도 아니고 우유라니!

IV. 어쨌든 나는 들이지 않기 위해 정물처럼 고요히 스승님을 따라 나섰고, 짜장면과 음료, 과자 등을 팔던 ‘師大 강통’에서 그날

오후 꽤 긴 시간을 스승님과 시원한 우유를 마시며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드렸다. 경제학 이야기, 유학 이야기, 테니스 이야기....알코올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주옥같은 대화를 할 수가 있다니! 속마음은 안 그렇더라도 당시의 교수님들은 적어도 학생들 앞에서는 늘 근엄하셨고 진지하셨다. 문틈으로 불러내시거나, 같이 우유를 마시자고 하시거나, 긴 시간을 우유와 아이스케키를 나누며 학생과 대화를 하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V. 그 여름 우유를 마신 이후에도 스승님을 자주 뵈 수 있었고, 그때마다 스승님은 유머러스하고 콘텐츠있는 말씀으로, 막 발아기에 있던 나의 경제학적 예고에 전기충격을 가하시곤 하셨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야 문중아, 이것 좀 풀어봐라” 하시면서 미시경제학 중간고사 문제지를 주셨다. 그때 왜 스승님께서 나에게 문제지를 주셨는지 지금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문제들은 내가 그때까지 경험했던 문제들과는 사뭇 달랐다. ‘아, 경제학 문제가 이럴 수 있구나, 어려워면서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 이런 경제학 문제를 낼 수도 풀 수도 있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렇다면 공부를 더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스승님 책임이다.

VI. 스승님과의 그 가을은 테니스로 수놓은 계절이었다. 워낙 꾸밈을 싫어하고 밝은 스승님의 모습은 코트에서도 빛을 발했다. 그

래서 스승님과 함께 땀 테니스 코트는 늘 즐겁고 활기찼다. 특히 같은 편이 되어 상대편을 이기면 상대편이 비감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 즐거워하셨다. 게임이 안 풀린다 싶을 땐, 다양한 경제학 용어를 화려하게 엮어서 상대의 동작과 전략을 이영표식 예언이 가미된 해설로 설파하시며 뛰어다니시곤 했다. 이길 때까지 해설하는 이 절세의 무공에 걸린 상대팀은 집중력을 잃고 자멸하곤 하였다.

VII. 스승님의 절세 무공, 또 있다. 경영대 노장들이 농구대결을 신청하였고, 조건 중의 하나가 교수님 한 분이 반드시 뛰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가장 젊으시다는 이유(? ㄱㄱ)만으로 스승님을 선수로 영입하였다. 스승님은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양팀을 통틀어 가장 많이 뛰고 가장 많이 해설하셨다. 양팀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며 경기가 끝나가던 순간, 코트 중간쯤에서 좀처럼 전진하지 못하고 코트를 횡으로만 가로지르며 현란하게 드리블하시던 스승님은 갑자기 골대 부근에 있는 내 이름을 우렁차게 부르시며 혼신의 힘을 다해 공을 던지셨고 나는 그 공의 궤적을 보며 뛰었는데....아아...나는 무림 전설 속의 탄지신공을 보고야 말았다. 그 공은 그림같은 포물선을 그리며 림도 건드리지 않고 네트 속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빨려 들어간 것이다. 승부는 거기서 갈렸다. 잠깐의 진공같은 정적 후, 뒤집어진 사람, 데굴데굴 구르는 사람, 웃다가 숨을 못쉬고 꺾꺾거리는 사람 등으로 체육관은 이수라장이 되었고 곧 종료 휘슬이 울렸다.

VIII. 유학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도 스승님은 많은 도움을 주셨다. 한때 재정학에 대해 꿈이 있었던 나에게 장시간 재정학이 어떤 것인지 자상하게 설명해서 결국 포기하게 만드시기도 했다. 참 이상한 건 내가 강의 한 번 정식으로 들은 적이 없으면서도 스승님께 꼭 추천서를 받고 싶었다는 것이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너를 가르친 적은 없지만 추천서는 꼭 써주고 싶다 하시던 반응이었다. 워드프로세스가 없어 모든 추천서를 일일이 타이프라이터로 쳐야했던 시절, 스승님은 직장 한 번 듣지 않고도 가까워진 아마도 첫 번째이자 마지막 제자였을 나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셨다. 그 덕분이리라, 경제학의 동몽선습도 채 떼지 못한 나도 유학을 갈 수 있었다.

IX. 유학시절에도 외국에서 일할 때에도 스승님은 늘 가장 기억나고 가장 뵈고 싶은 분 중 한 분이셨다. 그래서 귀국할 때마다 항상 찾아뵈었는데, 그때마다 스승님은 환한 미소로 “야, 너 요새도 공 좀 치냐!? 요새 뭐하고 놀아?”하며 맞아주셨다. 다른 친구들을 보시면 공부 잘 되냐 논문 좀 썼냐 물으신다는데 왜 나에게만 이상한 질문을 하실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스승님의 미소와 그 질문이 나를 고향에 온 듯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곤 했던 것은 분명하다. 스승님은 또 캠퍼스의 사계를 사진찍어 만든 CD를 주시기도 하고, 옥고를 모은 저서를 주시기도 했다. 어떤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 환경 문제를 열정적으로 말씀해주시기도 했는

데, 그런 가르침들은 아직 영성한 나의 경제학 지도 위에 새로운 나침반으로 자리를 잡곤 하였다.

X. 세월은 흐르고 나도 연어 떼의 한 마리처럼 결국은 우리나라에 안착하였다. 학교에 있을 때에도, KDI에 있을 때에도,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에도, 고민이 있거나 마음이 쓸쓸할 때 나는 스승님을 뵈러가곤 했다. 정신적 죽비를 한 방씩 맞으면 안개가 걷히며 못보던 세상이 보이기도 했고, 어떨 땐 더 흥미해지기도 했다. 물론 그런 흥미함 역시 더 짜인한 깨달음을 위한 통쾌한 장치이곤 했지만 말이다.

XI. 그러던 어느 날, 윤희숙 박사에게 스승님의 제자들이 가끔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몇 번 쫓아 나가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늘 그 친구들이 부러웠다. 하지만, 강의 한 번 제대로 안 듣고 스승님께 사사한 사람은 나뿐일 거고, 더운 여름날 스승님과 우유마신 사람도 나뿐일 거고, 테니스 승률의 상당 부분이 ‘입담’과 관계있다는 것과, 또 마지막까지 실력을 아끼시다가 비장의 탄지신공으로 울트라 장거리 슛 한 방을 날려 승부를 정리하신 스승님의 내공 경지는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나뿐일 거라는 생각에 자부심을 갖기도 했다.(그런데 이 친구들, 요샌 날 부르지 않는다. 모이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애써 추측한다.)

XII.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를 전후하여 기원이 바뀐다. 나는 스승님을 뵈 낳을 전후하여 나의 경제학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스승님은 나에게 강의를 통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나의 삶에 그 이상의 큰 영향을 주셨다. 그래서 최근에는 내가 사실은 스승님의 강의를 들었던 게 아닌가하는 혼란마저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이제 스승님께서 정년퇴임하신다. 늘 바른 곳에 서시고, 옳지 않으면 가지도 행하지도 않으시던 분. 강의와 논문지도를 통해 수많은 제자를 키우시고 우리 경제학의 큰 기둥이 되신 분. 발 헛디딜 뻔한 그 한량을, 직접 강의 한 번 안하시고도 이렇게 키워놓으신 분. 스승님은 나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스승님이시지만, 스승님 안 계신 학교는 왠지 예전같은 학교가 아닐 것만 같다.

차문중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제경제, 산업, 서비스, 제도, 발전,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 관심이 많다.

이준구 교수님은 내 대학 생활의 즐거움



* 한순구(경제학과 87학번)_연세대학교

“**내** 수업에서 학점 잘 받고 인사도 안 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어리버리한 대학 1학년생이었던 내가 들었던 경제학원론 수업에서 이준구 교수님께 들은 말씀이다.

아주 좋은 학점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한 수준의 학점을 받았던 나는 경제학원론 수업 성적이 나오자 용기를 내서 이준구 교수님을 찾아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수님들이 어려워서 찾아가지도 못하는 신입생들에게 격려의 이야기로 하신 것이었을 텐데, 이런 말을 믿고 고지식하게 찾아온 학생을 보고 다소 황당하시지 않으셨을까 싶다.

하지만 역시나 이준구 교수님께서는 주눅거리며 말도 잘 하지도 못하는 신입생을 얹혀 놓으시고 근 30분이 넘도록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1987년도에 이준구 교수님께서 경제학원론을 강의해 주시고 내가 신입생으로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도 큰 행운이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교수가 된 지금에서야 느낄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찾아오는 학생들을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매번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 주셨던 교수님의 제자 사랑이다. 교수로서 가장 힘들면서도 생색이 나지 않는 것이 제자들과 개인적인 상담이나 대화를 해 주는 것이다.

물론 제자들로서는 시대의 가장 뛰어난 지성과 잠시라도 대화를 나누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면 행운 중의 행운이겠지만,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한두 명을 얹혀놓고 이야기하는 동안 연구와 개인 업무에 큰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제자와의 개인적인 면담이다.

정말로 이준구 교수님께서서는 이런 힘든 면담을 전혀 힘든 기색 없이 오히려 반겨 맞으시며 해 주셨다. 그러다 보니 공부나 진로 이야기는 물론 시시콜콜한 연애 상담까지 교수님을 찾아가서 받고는 했으니 철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곤 한다.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다른 교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일도 가끔 있었는데, 오히려 그 교수님을 돌려보내시고 우리 제자들과 이야기를 이어가곤 하셨던 기억이 난다. 진정한 스승님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자주 찾아가서 괴롭혀 드린 것에는 교수님의 책임도 있다. 너무 재밌으셨던 것이다. 경제학 수업이란 지루한 수식을 설명하시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묵묵히 진행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준구 교수님의 강의는 언제나 웃음 바다였던 것이다. 번득이는 아이디어로 재치 있는 말씀을 해 주시니 학생들로서는 수업시간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 주 수업이 끝나면 다음 주 수업이 금방 기다려지던 것이 바로 이준구 교수님의 수업이었다.

지금 와서 고백하자면 이준구 교수님의 수업을 고대했던 것은 나쁜이 아니었다. 교수님 수업에서 들었던 즐거운 이야기를 매번 집에 와서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들려 드리다 보니 어머니가 “오늘은 교수님 수업에서 무슨 재밌는 이야기 들은 것 없냐?”고 물으시곤 하셨다. 결국 교수님의 수업은 나쁜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에게 행복을 주었던 것이다.

이렇듯 교수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큰 내 여동생이 후에 법대에 진학해서 찾아 뵈는 적이 있다는데 제자의 여동생이란 이유로 역시 친절하게 돌봐주셨다.

존경하는 스승님은 많지만, 내가 진정으로 닮고 싶었던 분은 분

명히 이준구 교수님이시다. 지금도 학생을 대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이준구 교수님을 닮은 선생님이 되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연구를 잘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교수님들도 계시다.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진정한 선생님이 라고 생각된다.

매년 수많은 제자들이 들어오지만 모든 제자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대해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정말로 드물다. 바로 이준구 교수님은 그러한 진정한 선생님이시다.

나와 같은 철없는 제자들이 그런 교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이준구 교수님의 이러한 제자 사랑은 교수님의 제자에서 또 그 다음 제자들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준구 교수님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한순구는 1998년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부학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입학처 부처장과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학 교수로 산다는 것



* 홍종호(경제학과 82학번)_서울대학교

이준구 선생님을 처음 뵈 건 학부 3학년 1학기 수리경제학 첫 시간 때였다. 당시 나의 “강단” 경제학에 대한 흥미 정도를 감안한다면 수리경제학은 예외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자신의 경제적 만족을 위해 이기적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 인간형을 그려 놓은 경제학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거부감이 적지 않던 시절에 수리경제학이라니.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의 직접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효용극대화 모형이나 이윤극대화 모형 등을 수식으로 풀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아니던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유학을 염두에 두고 있던 차에 대학원 가서 공부하려면 수리경제학은 기본으로 들어야 한다는 선배들의 조언과, 새로 부임하신 젊은 교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결합된 수강 결정이 아니었나 싶다.

선생님은 조용하신 분이였다. 차분하게 행렬과 최적화 문제, 또 여러 수리경제 모형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수리 모형이 갖는 문제점이나 한계 등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으셨다. 나아가 당시 다른 교수님들의 수업에서 가끔 들을 수 있었던 시대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나 고민 등을 토로하신 적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그런지 80년대 초반 학부를 다녔던 나에게 이준구 선생님은 주류 경제학을 공부하신 똑똑한 모범생 교수님으로 각인되었다.

시간이 지났다. 나는 고민 끝에 미국 유학을 결심했고, 공공경제 분야 중에서도 당시 남들이 별로 전공하지 않던 환경자원경제학을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했다. 첫 직장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부임하면서 국내에서의 학회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로서는 비교적 신생 학회인 한국환경경제학회에 논문 발표를 신청했는데, 이준구 선생님께서 학회장을 맡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척 반가웠고, 한편으로는 선생님께서 환경문제에도 관심이 있으셨나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그 후로 선생님을 종종 찾아뵈었는데, 특히 직장을 두 번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다. “이준구 교수님 제자모임”을 만들어 1년에 두 번씩 모임을 갖기도 했다. 선생님께서 재정학자로서 특히 소득분배, 교육, 그리고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 역시 알게 되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여기까지는 친한 대학 은사님과 제자의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

선생님께서 달라지셨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경제 정책이라면 아마도 종합부동산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종부세로 인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주택소유자들의 거센 조세저항과 보수언론들의 극렬한 비판이 뒤따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께서서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종부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파하셨다. 내가 기억하는 한 국가적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이처럼 선생님의 생각을 직접적이고 강하게 피력하신 경우는 종부세가 처음이 아니었나 싶다. 더구나 당시 정치 지형상 분명한 이념적 전선이 형성되어 있던 민감한 이슈였는데 말이다. 나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학자들이 압도적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학계가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든 입장을 잘 드러내지 않거나 유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생각한다. 대학에 있는 경제학자들에게서 보수 정권을 상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은 쉽게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종부세 논쟁 때 보여준 이준구 선생님의 모습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동안 내가 보아 왔고 느껴 왔던 선생님의 모습이나 삶의 방식과는 많이 달랐던 것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준구 선생님께서서는 더 날카롭고 분명하게 당신의 소신을 펼치셨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대운하-4대강 사업이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후보의 제1공약으로 등장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MB정부 5년간 4대강 사업으로 변

모하면서 나라 전체를 논쟁과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 이것은 내가 평소 갖고 있던 소신과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업이었기에 기회 닿는 대로 세미나, 토론회, 언론 출연 등을 통해 나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한마디로 국책 사업으로서의 대운하-4대강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내 주장의 핵심이었다. 생태, 환경, 토목, 물류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2008년 초 서울대에서 촉발된 교수들의 반대 운동은 전국에 걸쳐 2,500여명이 참여하는 “운하반대교수모임”으로 확대되었다. 문제는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는 비판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것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차치하고 나는 내심 외로웠다.

이준구 선생님께서 펜을 드셨다. 선생님께서는 특유의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필치로(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선생님은 20여 년간 미시경제학과 재정학 교과서의 독보적인 베스트셀러 저자이시다.) 대운하-4대강 사업의 모순을 명쾌하게 짚어주셨다. 평소 언론과의 접촉은 대부분 사양하시는 선생님께서 기자와의 인터뷰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경제학자로서 워낙 명성이 높으신 선생님께서 이렇듯 단호하게 대운하-4대강 반대를 외치셨기에 우리의 운동은 큰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국민 여론 역시 많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이 외견상 종료되고 정부가 바뀐 지금까지도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끊임없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다. 녹조로 신음하는 하천과 그 속에서 고통 받는



경제학과 82학번 동기들과의 강원도 수학여행(1984년 11월)

생명체로 인해 마음 아파하신다. 유구히 흘러온 우리의 강을 하루 속히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야 한다고 역설하신다.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족한 제자에게 너무 큰 힘이 되어 주셨다. “..후배 교수인 홍종호 교수가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그 후배 교수는 전문적으로 파고들고, 나 같은 사람은 상식적 수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고 봐야 하죠.” 당시 대운하 관련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눈물이 났다. 제자인 나를 ‘후배’로 지칭하며 격려해 주셨다. 나는 선생님처럼 유려하게 글을 쓰지 못하고, 공부한 사람치고는 감정이 너무 앞서는 면이 많다. 그런 나를 사석에서 만날 때면 늘 힘을 북돋아 주셨다. 선생님이 계셨기에 지치지 않고 그 시절을 견딜 수 있었다고 믿는다.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내가 아는 한 이준구 선생님은 본래 스포트라이트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논쟁적 이슈의 중심에 서



수학여행 때 우리가 묵었던 호텔 앞에서 한 컷(제일 오른쪽이 나)

는 것을 그다지 즐겨하지 않으시고, 언론에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는 건 더더욱 꺼려하신다. 일 년 365일 거의 예외 없이 선생님 댁과 연구실을 출퇴근하신다. 교수가 천직인 분이다. 그런 천성을 가지신 선생님께서 권력이 강제한 정책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셨다.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다. 서울대 교수로서 그동안 쌓아온 명성을 지키면서 충분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나 역시 이 나라에서 교수생활을 적지 않게 한 경험으로 볼 때 이준구 선생님께서 지난 10여 년간 보여주신 모습은 세상에 많이 알려진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쉽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최고 권력을 향해 쓴 소리를 해야 하는 일이다. 국토와 후손, 생태와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 명예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그것도 경제학자가 말이다.

케인스는 말했다. “경제학자와 정치철학자의 생각은, 그것이 맞

든 틀리든 간에,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사실, 세상은 그 외의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다.”

내게 주신 이준구 선생님의 가르침은 강의와 교과서를 뛰어넘
는다. 그것은 용기와 실천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기쁘다.

홍종호는 미시간주립대, 코넬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 한국개발연구원, 한양
대 경제금융대학, 그리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거치면서 연구활동과 후학양성 중이다.
두 딸과의 대화와 토론을 즐긴다. 미식축구 광팬이어서 언젠가 슈퍼볼 한국 생중계 해
설을 꿈꾸고 있다.

꽃보다 제자

강대창 (경제학과 86학번, 한국행정연구원)
김영철 (전기공학부 95학번, 상명대학교)
김인경 (경제학부 01학번, 한국개발연구원)
김 진 (경제학과 86학번, 동덕여자대학교)
김태승 (경제학과 81학번, 인하대학교)
김태중 (경제학과 84학번,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김희삼 (경제학과 88학번, 한국개발연구원)
노영우 (경제학과 88학번, 매일경제신문)
류두진 (전기공학부 99학번, 성균관대학교)
박상인 (경제학과 84학번, 서울대학교)
서영경 (경제학과 82학번, 한국은행)
성명재 (경제학과 83학번, 홍익대학교)
신영철 (경제학과 82학번, 대진대학교)
신진영 (경제학과 81학번, 연세대학교)
오종석 (경제학부 06학번, 서울대학교)
옥동석 (경제학과 76학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희숙 (경제학과 89학번, 한국개발연구원)
이상영 (경제학과 81학번, 명지대학교)
이 영 (경제학과 83학번, 한양대학교)
이창용 (경제학과 80학번, 국제통화기금)
이태환 (경제학부 94학번, 삼성경제연구소)
전영준 (경제학과 83학번, 한양대학교)
조명환 (경제학부 93학번, 서울시립대학교)
조성욱 (경제학과 82학번, 서울대학교)
주병기 (경제학과 89학번, 서울대학교)
차문중 (경제학과 80학번, 한국개발연구원)
한순구 (경제학과 87학번, 연세대학교)
홍종호 (경제학과 82학번, 서울대학교)

꽃보다 제자

2014년 11월 21일 초판 인쇄

2014년 12월 5일 초판 발행

저 자 강 대 창 외 27인

발 행 인 김 영 훈

기획·마케팅 전 영 완

편 집 김 병 성

발 행 처 도서출판 **문우사**
MoonWoo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장항동 웨스틴돔타워) T2동 814호

전 화 070) 4200-6542

팩 스 031) 906-6542

이 메 일 moonwoosa@hanmail.net

출판신고번호 제396-2013-000113호

정가 10,000원

ISBN 979-11-85994-02-4

본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